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88491

2020년 2월

석사학위논문

아동의 부적응관련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 2001년 ~ 2019년 국내 학위논문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 자 인 학 과

유 설 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아동의 부적응관련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 2001년 ~ 2019년 국내 학위논문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 on Art Therapy Related to maladjustment of Children : Centered on Domestic Dissertations from 2001 to 2019

2020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 자 인 학 과

유 설 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아동의 부적응관련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 2001년 ~ 2019년 국내 학위논문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진 욱

이 논문을 디자인학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 자 인 학 과

유 설 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유설화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손 영 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문 정 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진 욱	(인)

2019년 11월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3
3. 연구 계획 ····· 5

Ⅱ. 이론적 배경 ····· 6
1. 부적응 ····· 6
1) 부적응의 개념 ····· 6
2) 부적응의 원인 ····· 8
3) 부적응 행동의 특성 ····· 9
2. 아동과 미술치료 ····· 10
3. 부적응과 미술치료 ····· 11

Ⅲ. 연구방법 ····· 13
1. 분석대상 논문의 선정 기준 ····· 13
2. 분석대상 논문 수집 및 절차 ····· 13
3. 분석기준 ····· 14
1) 연도별 논문 ····· 15
2) 연구 대상 ····· 15
3) 연구 설계 ····· 16
4) 미술치료 구조 ····· 19
5) 미술치료 프로그램 ····· 22
4. 자료처리 ····· 25

Ⅳ. 연구 결과 ····· 26
1. 연도별 논문 분석 ····· 26
2. 연구 대상 분석 ····· 2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연구 대상의 연령(학년) ····· 28
2) 연구 대상의 성별 ····· 30
3) 연구 대상의 유형 ····· 31
3. 연구 설계 ····· 32
1) 연구 결과 분석방법 ····· 32
2) 연구 설계 ····· 33
3) 연구주제 ····· 33
4) 연구 도구 ····· 35
4. 미술치료 구조 ····· 38
1) 치료환경 ····· 39
2) 치료형태 ····· 39
3) 치료형태 별 활동 ····· 40
4) 참여 인원수 ····· 41
5) 총회기 수 ····· 42
6) 주당 회기 수 ····· 43
7) 회기 별 치료 시간 ····· 44
5. 미술치료 프로그램 ····· 45
1) 미술치료 프로그램 유형 ····· 45
2) 미술치료 프로그램 목표 ····· 46
3) 미술치료 프로그램 표현 매체 ····· 54
4) 미술치료 프로그램 표현 방법 ····· 58

V. 결론 및 제언 ····· 6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 1> 부적응에 관한 정의 ····· 7
<표 2> 연구 대상의 분석기준 ····· 16
<표 3> 연구 결과 분석 방법의 분석기준 ····· 18
<표 4> 연구 설계의 분석기준 ····· 18
<표 5> 연구 도구의 분석기준 ····· 19
<표 6> 연구 주제의 분석기준 ····· 19
<표 7> 미술치료 구조 분석기준 ····· 21
<표 8> 미술치료 프로그램 유형의 분석기준 ····· 24
<표 9>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목표 분석기준 ····· 24
<표 10>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매체 및 표현 방법 분석기준 ····· 25
<표 11> 연도별 학위 논문 수 ····· 27
<표 12> 연구 대상의 연령(학년) ····· 29
<표 13> 연구 대상의 성별 ····· 30
<표 14> 연구 대상의 유형 ····· 31
<표 15> 연구 결과 분석방법 ····· 32
<표 16> 연구 설계 ····· 33
<표 17> 연구 주제 ····· 33
<표 18> 다중변인(종속변인) ····· 34
<표 19> 연구 도구 ····· 35
<표 20> 객관적 검사 도구 ····· 36
<표 21> 투사 검사 도구 ····· 37
<표 22> 치료환경 ····· 39
<표 23> 치료형태 ····· 40
<표 24> 치료형태 별 활동 ····· 41
<표 25> 참여 인원수 ····· 42
<표 26> 총회기 수 ····· 43
<표 27> 주당 회기 수 ····· 4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8> 회기 별 치료 시간 ····· 44
<표 29> 미술치료 프로그램 유형 ····· 45
<표 30> 미술치료 프로그램 목표 ····· 46
<표 31> 미술치료 프로그램 목표 - 초기 ····· 48
<표 32> 미술치료 프로그램 목표 - 중기 ····· 50
<표 33> 미술치료 프로그램 목표 - 후기 ····· 52
<표 34> 미술치료 프로그램 표현 매체 ····· 55
<표 35> 미술치료 프로그램 표현 방법 ····· 58
<표 36> 미술치료 프로그램 표현 방법 - 초기, 중기, 후기 ····· 5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림 목 차

<그림 1> 연도별 학위 논문 수 ····· 28
<그림 2> 연구 대상의 연령(학년) ····· 29
<그림 3> 연구 대상의 성별 ····· 30
<그림 4> 다중변인(종속변인) ····· 34
<그림 5> 주요 객관적 검사 도구 및 투사검사 도구 ····· 38
<그림 6>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 ····· 54
<그림 7> 미술치료 프로그램 주요 세부 표현 매체 ····· 57
<그림 8>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주요 세부표현 방법 ····· 6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 on Art Therapy Related to maladjustment of Children
- Centered on Domestic Dissertations from 2001 to 2019 -

YU, seolhwa
Advisor: Prof. Lee jin uk, Ph.D.
Department of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analyse national theses on art therapy relating to children's maladjustment which were published from 2001 to September 2019 to identify the trend of national studies and present basic data on and strategies for further studies. For the purposes, this study investigated a total of 59 theses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se selection: 3 doctoral theses and 56 master's theses. This study analysed theses by year, the subjects of the study, the study design, the structure of art therapy and art therapy programs according to the analysis standard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s of analysing the theses by year, it was discovered that there only was 1 thesis in 2001, but there were 4 in 2004. Then, the number of theses continued to increase steadily and from 2001 to 2019, there were 3.3 theses as annual means.

Second, the number of the theses targeting children aged 11 to 12 was the most, and the mixed-sex studies were the most active. The quantity of the studies on normal children who did not receive medical diagnosis was overwhelmingly high.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hird, as for the trend of study design, the number of integrated theses includ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was the most. The studies on a single variable only with maladjustment as a theme were more than those on multiple variables. A representative multiple variables that was studied along with maladjustment was self-development. As an objective survey tool, the Korea-Child Behavior Checklist was used and as a projective test tool, the Kinetic School Drawing(KSD) was usually used.

Third, art therapy was usually given at schools and group therapy was the most frequently given. In respect to activity according to therapy types, usually, individual activity was accompanied by group activity for group therapy. 3 to 5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group therapy. The therapy was given a total of 10 to 15 times a week for 30 through 60 minutes.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심리적인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며 발달해 간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정보화시대는 사회의 구조와 생활이 복잡해지고, 가족 형태의 다양화,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 등의 가치관의 혼란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단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혼란이 아니라 작은 사회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아동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법에서는 만 6세 ~ 만 12세까지를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학령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춘경, 2016).

아동들은 가정을 떠나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사회적 집단인 초등학교에서 학령기 동안에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과정을 통하여 올바르게 사회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익혀가는 곳이라 할 수 있다(홍정화, 2004). 사회적 집단 안에서의 경험과 기억은 아동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아동이 또래 관계나 환경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 공격성, 우울, 충동성, 위축, 반항적인 태도 등을 보이는 부적응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학업중단 학생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6,088,827명 중 47,070명이었으며, 그중 학업을 중단한 초등학교 학생은 14,555명으로 약 31%를 차지한다. 그중에서 해외 출국이나 질병을 제외한 대인관계와 학업 등에 대한 부적응으로 학교를 그만둔 초등학생이 2,733명으로 0.10%, 중학생은 4,376명으로 0.28%, 고등학생은 17,850명으로 1.0%로 나타났다.[1] 초등학교 과정보다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업을 중단의 비율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의 부적응 행동 또는 문제행동을 충분히 다뤄 해결해야 하나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이어져 그에 따른 영향이 중·고등학교로까지 이어지게 된 결과라고

1) 교육부(2016). 2015학년도 학업중단 학생 현황발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생각된다. 이때는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의 중단뿐만 아니라 일탈 행위 등의 문제행동이 함께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아동기의 시기가 한 인간이 얼마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시기로서 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다. 아동기는 인생에 있어서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아동기의 또래 관계나 집단 안에서의 관계가 중요시되는 시기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집단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하는 문제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 할 수 있는가의 유무를 판가름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집단이나 관계 속에 적절히 녹아들지 못하게 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마치 어른아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동의 부적응문제를 충분히 다뤄 줘야 하며,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부적응 아동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으로 미술치료, 원예치료, 연극치료, 통합예술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학교, 복지관, 상담센터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부적응 아동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문제 등을 언어화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과 언어적 표현력, 발달단계에 따른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고려해 볼 때 미술 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미술활동은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무의식을 끌어내어 외상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미술표현과 같은 비언어적 형태의 의사소통은 언어로는 접근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의 표출구가 되므로 미술활동은 무의식과 표출되지 않은 사고와 감정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다(Malchiodi 외, 2000). 또한 미술활동이 주는 비언어적이고 감성적인 표현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서를 함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재료와 여러 가지 기법 표현으로 무의식의 억압된 감정을 표출 승화시켜줄 수 있는 미술치료는 부적응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정선영, 1998)이라고 주장했다.

미술치료가 초등학교에서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자기표현력과 사회성에 긍정적 향상을 주었으며 이는 부적응 아동 치료에 효과가 있다(조윤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8)고 하였다. 부적응을 가지고 있는 저학년 아동에게 미술치료와 놀이를 활용한 미술 놀이 치료프로그램이 부적응 아동의 문제행동 및 또래 관계,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신지혜, 2010).

위와 같이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적응 아동에 관한 미술치료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고 보여 진다. 연구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양이 증가되는 활발한 활동 속에서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연구대상과 치료효과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지 총체적인 구조 분석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이수은, 2011). 또한 미술치료분야에서도 학문연구의 양을 떠나 체계적인 틀을 통해 현재 미술치료의 위치를 파악하고 스스로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할 때이다(김수빈, 2007).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서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미술치료가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지난 2001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국내 미술치료 석·박사학위논문 중에서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국내 부적응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미술치료 선행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연도별 발행 편수, 연구 대상 관련 특성, 연구 설계 관련 특성, 미술치료의 구조적 특성,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를 통해 부적응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의 파악함으로써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를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과 미술치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에 게재된 부적응아동 대상 미술치료 연구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미술치료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연구 대상의 특성과 연구 설계,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의 치료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첫째,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 연구논문의 연도별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 연구논문의 연구 대상별 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 연구논문의 연구 설계 별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넷째,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 연구논문의 미술치료 구조별 동향은 어떠한가?

다섯째,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 연구논문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동향은 어떠한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연구 계획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

분석대상 검색

-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통해 검색
- 2001-2019년 8월 국내 석·박사학위 발표논문
- ‘아동’, ‘부적응’, ‘미술치료’ 등 국회도서관을 이용하여 재검색

분석대상 선정

- 중복하여 검색된 논문을 제외
- 대상과 주제가 관련 없는 논문 27편 제외
- 열람 불가 등의 사유로 11편 제외
- 최종적으로 59편의 논문 선정

분석기준 설정 및 분석절차

- 논문 분석기준 선정 : 유사 내용을 범주화
- 분석기준에 따른 분석
  [발행 편수, 연구 대상, 연구 설계, 미술치료 구조, 미술치료 프로그램]

연구 결과

- 연도별 분석
- 연구 설계 별 분석
- 미술치료 프로그램 별 분석
- 연구 대상별 분석
- 미술치료 구조별 분석

결론 및 논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I. 이론적 배경

1. 부적응

1) 부적응의 개념

부적응 행동은 1950년대 초반까지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부적응이라는 용어로 쓰이다가 50년대 이후에는 Freud의 영향을 받아 정서 장애로 60년대 후기에는 행동문제, 문제행동, 이상행동, 행동장애의 여러 용어로 학자들마다 용어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부적응에 대한 관점이 다양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2] 아동의 부적응에 대한 사전별, 인물별 등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문미영(200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 부적응에 관한 정의

연구자	정의
교육대사전(1980)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그 사회의 질서 규범에 조화되지 못하여 사회에 대하여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그 개인 자신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997)	사람이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조화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
한국미술치료학회 (1994)	적응상태와는 반대로 불안, 절망, 소외감,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를 가지게 되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상태
정원식 외 (1984)	환경의 여러 가지 조건에 이해서 욕구충족이 좌절되거나 지연되는 등의 장애에 부딪치게 되어 욕구불만이 일어나고,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갈등과 욕구불만의 해소과정에서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것
정여주(2003)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와 문제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여 자기 조절을 잘하지 못하고 동시에 환경을 변화시키지도 못하여 자기 내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아울러 부적절한 대응행동을 하는 것
Kauffman(1981)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다른 사람의 기대나 그들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
Bower (1969)	부적응이란 환경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갈등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과 원만하게 행복한 대인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것으로 친구나 교사와의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이루거나 지속할 수 없어 아동 자신이 불행이나 억압을 느껴 남들에게 그 영향을 준다거나 신체장애, 두려움을 개인적인 문제나 학교 문제에다 관련시켜 하려는 등의 몇 가지 특성들 중에서 하나나 둘 이상의 행동을 보이는 것
Liebman(1958)	부적응을 아동이 그의 욕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알맞은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상의 부적응에 관한 여러 정의를 종합하여 본 결과 부적응이란 아동이 사회, 환경과 인간관계에 있어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문제 상황에 있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의 결과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2) 부적응의 원인

부적응의 원인으로는 한가지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원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적응의 원인이 같을지라도 아동에 따라 다른 반응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원인이 아동에게 반복될지라도 상황에 따라 반응 행동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부적응 행동이라 하여도 관점이나 판단을 달리하여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 아동의 부적응 행동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7)에서는 "부적응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의 결함이나 성격이상과 같이 개인에게서 생기는 때도 있지만, 환경이 좋지 못해서 사람의 기본적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응을 가져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요구가 아무래도 충족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긴장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였다.

장대운(1989)은 부적응 원인을 "첫째, 개인의 지적, 정서적 또는 인성적 미숙의 발달로 불 수 있다. 둘째, 일시적인 기질적, 신체적 이상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가정환경으로 결손 가정 또는 가정불화가 어린이의 인성형성이나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학교생활에서 중요성을 지니는 교사의 체벌, 성적 위주의 학습활동으로 적대감과 열등감이 조성되어 학습부진아의 부적응 행동으로 발전 할 수 있다. 다섯째, 또래 집단에서의 행동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음으로 어떤 집단속에서 생활하는가도 중요하다. 여섯째, 사회·문화적 원인으로 한 세대와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 도덕관, 인생관 등과 사회인의 의식구조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동하(1991)는 부적응 원인을 “개인적 요인인 개체와 외적 요인인 환경으로 구분하여 개인적 요인으로는 신체적 결함, 정서장애, 지능의 저하 등으로 설명하였다. 외적 요인으로는 학교환경, 가정환경, 지역사회의 환경”으로 제시하였다.

김동하와 비슷한 원인으로 본 강봉규(1994)는 개체적 원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보았으며 “개체적 원인은 신체적 질환, 결함에 의한 것이며 환경적 원인은 대체로 가정생활에서의 부모, 형제와의 관계 그리고 학교에서의 친구, 교사와의 관계”라고 했다.

부적응의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의 결함으로 인한 정서적, 신체적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적응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학교생활, 가정 등의 환경에서 오는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부적응은 하나의 문제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닌 여러 문제의 결함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아의 삶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신에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이 확대되어 사회문제로 두드러질 수 있다고 본다.

3) 부적응 행동의 특성

아동의 부적응 행동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 한 가지 행동만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적응 행동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유영덕, 한수정(1996)은 부적응 행동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퇴행적 행동이다. 평소에는 말이 없고 지나치게 수줍어하며 친구가 없는 아동이다.

둘째, 공격적 행동이다. 침착성이 없고 불안해한다. 또는 이기적이고 난폭하여 싸움이 잦고 파괴적인 행동을 예사로 한다.

셋째, 미성숙 행동이다. 주의산만하고 환경적 요구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단체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넷째, 방어적 행동이다. 거짓말을 자주 하며 실패나 비판을 두려워하여 매사에 소극적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섯째, 신체적 징후이다. 편식이 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어쩔 줄 모르며, 손톱을 깨물거나 말을 더듬으며 두통이나 복통 등 병적 증세를 보인다. (유영덕 외, 1996)

Bower(1969)는 부적응 행동이 학교생활을 통해 표출된다고 보았으며,

첫째, 지적, 감각적, 신체적으로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학업 성취도가 비교적 낮은 아동이다.
둘째, 친구나 교사와의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다.
셋째, 정상적인 조건 하에도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아동이다.
넷째, 항상 불행하고 억압된 기분에 빠져있는 아동이다.
다섯째,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신체적 고통이나 공포심을 갖는 경향의 아동이다. (Bower, 1969)

부적응 아동은 자신의 감정표현, 문제 등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여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시 아동이 성장하여도 여러 측면에서 어렸을 적 모습이 고착될 가능성이 크며, 여전히 부적응 행동을 나타내는 어른아이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아동과 미술치료

미술치료는 미술과 치료가 결합된 심리치료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미술을 통하여 아동의 심리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Wadeson(1980)은 미술치료의 장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미술치료는 언어화되기 이전의 정신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심상(Image)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내담자의 방어를 감소 시켜 통제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구체적인 유형의 자료를 얻을 수 있게 해주어 재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영속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성을 가지고 기억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한다(백정옥, 2017).

또한 미술치료의 장점은 "성인과 비교하였을 때 언어적 표현이 미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 더욱 크게 부각된다. 아동은 미술활동을 통해 감정을 분출하고 정서적인 안정과 친밀감, 즐거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정신건강과 심리적 발달에 도움을 받는다." 고 하였다(김정숙 외, 2009; Rubin, 2007).

아동의 그림에는 무의식의 생활과 욕구, 희망, 기쁨 등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다. 사용하는 색채, 선의 표현, 구도, 기호에 따른 형태를 확인하고 분석하여 아동의 내면 의식 또는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대인관계 부적응, 애착의 결여, 접촉 회피, 언어장애, 주의산만, 특정 사물에 보이는 집착, 학습 부적응, 환경과 사물에 무관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아동에게 미술치료가 단계적으로 증상을 개선하거나 경감시키도록 할 수 있다(황명희, 2014).

이런 미술치료 과정에서 미술치료사의 역할을 Kramer(2000)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술치료사는 아동의 감정이 시각적인 형태로 도출될 수 있도록 표현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자 및 공감하는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제공해주어야 한다(Kramer, 2000).

아동과 미술치료를 정리해 볼 때 미술치료는 아동에게 사소한 문제들에 있어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환경과 관계에서 수용되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 부적응과 미술치료

부적응 아동에게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감정을 표현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미술 매체의 사용을 통해 자신감을 갖도록 해준다. 충분한 표현과 지지를 통해 아동은 퇴행적이고 공격적인 상징적 자아를 수용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도구와 과정들에 익숙해지는 유능함을 느끼고 공격적인 행동을 완화시키게 한다(김동연 외, 1997).

이에 시각적인 표현 수단인 미술은 부적응 아동에게 언어적인 표현수단과는 달리 심한 저항감 없이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를 자신도 모르게 구체화시킨다. 또한 그림을 통해 자신의 경험이나 내적 욕구, 무의식적인 갈등, 정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역동을 나타내게 하여 아동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통해 자기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개인의 독자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윤영임, 2001).

부적응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는 자신의 감정 또는 사고를 그림이라는 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자신의 경험이나 갈등, 욕구 등의 표현을 하도록 도우며 한발 더 나아가 자신에게 나타나는 부적응적 행동을 조절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환경과 관계 속에서 완만하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논문의 선정 기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국회도서관에 등재된 부적응 아동 관련 미술치료 학위논문이며, 2001년부터 2019년 8월까지의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 선행연구이다. 분석대상 논문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인 '미술치료'의 연구로 '미술치료 프로그램', '치료기반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독립변인이 미술치료가 아닌 '통합예술치료', '예술치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둘째, 종속변인인 부적응 관련 연구로서, '부적응', '학교부적응', '시설부적응', '부적응 행동', '정서적 부적응'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셋째, 아동의 부적응을 관련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교육법의 정의에 따라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로 규정하여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2. 분석대상 논문 수집 및 절차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의 논문 수집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부합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이용하여 2001년부터 2019년 8월까지의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을 위한 키워드로 '부적응', '학교부적응', '아동, '초등', '미술치료'를 조합하여 검색했다. 그 결과 중복 검색된 논문 등을 모두 포함하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총 96건이 검색되었다. 검색 된 논문 중 대상이 아동이 아니며 부적응과 미술치료를 관련하지 않은 논문 27편은 제외하였으며, 중복으로 검색된 논문 1편도 제외하였다.

둘째, 누락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회전자도서관(NDAL)을 이용하여 검색한 결과 2편의 학위논문을 추가했다.

셋째, 논문 수집 및 선정에서 제목과 초록만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모든 논문의 내용과 이론적 배경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논문을 선정하였다.

넷째,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총 70편의 논문 중 열람이 되지 않거나 복사, 대출 신청이 되지 않는 논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석사 56편, 박사 3편으로 총 59편을 분석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부록1)

3.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김숙이(2014)[3], 박치영(2018)[4], 안정아(2018)[5], 이재향(2015)[6], 전혜민(2018)[7]의 분석기준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아래와 같은 분석 기준의 최종 확인 과정에서 C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 1명, 미술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1명 최종 점검 과정을 거쳐 2차 수정·보완 했다.

---

3) 김숙이(2014). 한국 미술치료의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박치영(2018).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집단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 2002년 - 2017년 국내 학위논문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안정아(2018). 조현병에 대한 미술치료연구 동향 : 국내학술지를 중심으로. 차의과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이재향(2015). 초등학생의 사회성 관련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가천대학교 스포츠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전혜민(2018). 여성의 우울에 대한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연도별 논문

국내 학위 논문에 게재된 부적응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연구의 전반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도별 발행 편수를 석사, 박사 학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은 2001년부터 2019년 8월까지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도별 발행 편수와 학위별 논문을 빈도 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

미술치료 및 심리치료는 내담자의 사적인 문제 혹은 내면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미술치료 또는 심리치료를 연구할 때 치료 대상의 기본적인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항목을 연령(학년), 성별, 대상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대상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논문으로 아동은 만 6세부터 만 12세를 말한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연령(학년)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분류했다. 분석 대상의 논문에서는 일반나이로 기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반나이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만 나이로 기재된 경우 학년을 고려하여 일반나이로 바꾸어 정리하여 보았다. 하나의 논문에서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연구 대상의 연령을 중복처리 했다. 성별은 남, 여, 혼성으로 분류해 보았다.

연구 대상의 유형은 일반과 의학적 진단을 받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일반적 유형은 일반, 다문화, 가정, 시설이용 및 거주로 4가지 하위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진단에는 진단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정신 및 행동장애, 발달 및 학습장애, 정서 및 기분장애 3가지 하위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대상의 2가지 이상 항목에 해당할 경우 중복처리 하였다. 연구 대상의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표 2> 와 같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 연구 대상의 분석기준

항목	구분		세부내용
연구 대상 연령(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8세 (초등학교 1학년)
			9세 (초등학교 2학년)
			10세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11세 (초등학교 4학년)
			12세 (초등학교 5학년)
			13세 (초등학교 6학년)
연구 대상 성별	성별		남, 여, 혼성
연구 대상의 유형	일반	일반	부적응 행동, 문제행동, 공격성 등
		가족	결손가정, 가정폭력, 등
		다문화	다문화가정, 이민자 등
		시설이용 및 거주	시설거주,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이용 등
	의학적 진단	행동장애	ADHD, 틱장애, 반항장애 등
		발달 및 학습장애	자폐스펙트럼, 학습장애, 정신지체, 경계선 지적장애 등

3)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 연구 설계는 김선정(2010)[8], 박치영(2018)[9], 여울(2016)[10], 이선민(2016)[11], 이지현(2016)[12]을 참고하여 연구분석방법, 연구 설계, 연

8) 김선정(2010). ADHD 아동을 위한 국내 미술치료 중재연구 현황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박치영(2018).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집단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 2002년 - 2017년 국내 학위논문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여울(2016). 치매노인 대상 미술치료의 국내 연구 동향 분석 : 2000년~2015년 국내 논문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이선민(2016).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사례 동향 연구 : 2010년-2015년 국내 및 국외 학회지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이지현(2016)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연구 현황 분석 및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구주제, 연구 도구로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분석방법은 서련(2017)[13], 박치영(2018)의 분석기준을 참고하여 양적 분석, 질적 분석, 통합적 분석, 기타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로 분류하였다. 양적 분석은 표준화된 검사나 척도를 이용하여 중재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여 통계적 수치를 사용한 수치화된 연구방법이다. 질적 분석은 수치화된 분석이 아닌 현상의 개별적 행동관찰, 그림 분석 등의 사례연구로 비통계적 연구방법이다. 단, 이 논문에서는 객관적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결과로써 제시하지 않는 연구는 질적 연구에 포함했다. 통합적 분석은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합하여 분석한 연구방법이다.

연구 설계는 선행연구 김석우 외(2015)[14], 이지현(2016), 전혜민(2018)[15]을 참고하여 실험-통제집단, 단일집단, 단일피험자, 조사연구, 사례연구로 분류하여 보았다.

연구 주제는 논문 제목과 논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주제를 분류했다. 부적응만을 주제로 한 단일변인과 부적응연구 주제와 다른 주제를 병행하여 연구한 다중(종속)변인으로 분류하였다. 다중변인은 이재향(2015)[16]과 논문의 제목과 내용을 참고하여 5가지 항목으로 범주화하였다.

연구 도구는 객관적 검사 도구와 투사 검사 도구로 분류했다. 객관적 검사는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조화되어있고 채점과정이 표준화된 것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투사 검사 도구는 객관적 검사 도구와는 반대로 비구조화된 검사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았으나 내담자의 다양한 반응을 분석할 수 있는 검사로 내담자의 심층적이고 중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연구 설계의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표 3>, <표 4>, <표 5>, <표 6> 과 같다.

---

13) 서련(2017). 진로관련 미술치료의 국내 연구 동향.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김석우, 박상욱(2015).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15) 전혜민(2019). 여성의 우울에 대한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이재향(2015). 초등학생의 사회성 관련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가천대학교 스포츠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3> 연구 결과 분석 방법의 분석기준

항목	구분	세부내용
연구 결과 분석 방법	양적 분석	표준화된 검사나 척도를 이용하여 중재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여 통계적 수치를 사용하여 수치화한 연구 방법
	질적 분석	수치화된 분석이 아닌 현상의 개별 적 행동관찰, 그림 분석 등의 사례 연구로 비통계적 연구방법. 단, 객관적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결과 제시가 없는 연구의 경우 포함
	통합적 분석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한 연구 방법
	기타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검증)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방법

<표 4> 연구 설계의 분석기준

항목	구분	세부내용
연구 설계	실험-통제집단	실험군과 통제군을 나누어 중재 후 통계를 이용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설계
	단일집단	단일집단을 중재 후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설계
	단일피험자	단일대상을 중재 후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설계
	조사연구	자료 수집을 위해 면접, 질문지 검사를 하여 특정한 주제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설계
	사례연구	논문의 제목에 사례연구라 표기되어있는 논문과 연구방법에 사례연구라고 기술되어있는 논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5> 연구 도구의 분석기준

항목	구분	세부내용
연구 도구	객관적 검사 도구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학교적응 척도, 사회성검사 척도, 자기조절능력 척도, 사회성숙도검사, 자기표현 평정척도, 자기효능감 척도 등
	투사 검사 도구	동적 집, 나무, 사람검사(K-HTP), 집, 나무, 사람검사(HTP), 학교생활화(KSD), 동적가족화(KFD)

<표 6> 연구 주제의 분석기준

항목	구분		세부내용
연구주제	단일변인		부적응, 학교부적응, 시실부적응, 정서적부적응, 부적응 행동(공격성 포함), 문제행동 등
	다중변인 (종속변인)	자아발달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자기표현 등
		사회성	사회성, 사회적 기술 등
		관계 형성	또래 관계, 교우관계 등
		심리·정서	애착, 정서, 정서지능, 회복탄력성 등
		신체	야뇨 감소

4) 미술치료 구조

본 연구에서 미술치료 구조는 선행연구 김선정(2010)[17], 이선민(2016)[18], 이재향(2018)[19]를 참고하여 치료환경, 치료형태, 치료형태 별 활동, 참여 인

17) 김선정(2010). ADHD 아동을 위한 국내 미술치료 중재연구 현황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이선민(2016).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사례 동향 연구 : 2010년-2015년 국내 및 국외 학회지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이재향(2015). 초등학생의 사회성 관련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가천대학교 스포츠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원수, 총회기 수, 주당 회기 수, 회기 별 치료 시간으로 분류하였다.

치료환경 이재향(2018)을 참고하여 학교, 사설기관, 복지시설, 기타, 미기재로 총 5가지 항목으로 범주화했다.

치료형태 분석 대상 논문의 내용과 김선정(2010)[20]을 참고하여 1인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미술치료와 2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집단미술치료, 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족미술치료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치료형태별 활동과 참여 인원수는 이선민(2016)[21]을 참고하여 개인 활동과 집단치료이지만 개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지 개인 활동과 집단 활동을 병행한 중심인지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총회기수 김선정(2010)을 참고하여 5회기 단위로 분류하였고, 주당 회기수는 분석 대상의 논문과 일반적으로 미술치료에서 가장 선호되는 주 1회 정도(정여주, 2003)인 것을 고려하여 주 1회, 주 2회, 주 3회, 주 4회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회기별 치료 시간은 유아와 아동 미술치료는 대게 50분 정도 소요된다는 것(정여주, 2014)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보통 30-45분이 적당하다는 것(강진령, 2007)을 고려하여 30-60분, 70-90분, 100분-120분, 미기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미술치료 구조의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표 7> 과 같다.

20) 김선정(2010). ADHD 아동을 위한 국내 미술치료 중재연구 현황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이선민(2016).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사례 동향 연구 : 2010년-2015년 국내 및 국외 학회지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7> 미술치료 구조 분석기준

항목	구분	세부내용
치료환경	학교	교실, 상담실, Wee센터, 특수학급, 미술실 등
	사설기관	미술학원, 미술치료연구소, 치료실, 영재교육원 등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상담센터, 특수교육센터, 가족문화센터 등
	기타	교회, 연구 대상아동의 집
	미기재	
치료형태	개인 치료	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
	집단치료	2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
	가족치료	모-자를 대상으로 실시
치료형태 별 활동	개인 치료	개인 치료로 개인 활동
	집단 치료 : 개인 활동	2인 이상의 집단치료로 개인 활동 중심으로 진행
	집단 치료 : 집단, 개인 활동	2인 이상의 집단치료로 개인 활동과 집단 활동을 병행하여 진행
참여 인원수	1명 / 2명 / 3-5명 / 6명-10명 / 11-15명 / 16-20명 / 21명-25명 / 26-30명 / 31명 이상	
총회기 수	10회기 미만 / 10-15회기 / 16-20회기 / 21-25회기 / 26회기 이상	
주당 회기 수	주 1회 / 주 2회 / 주 3회 / 주 4회	
회기 별 치료 시간	30-60분 / 70-90분 / 100분-120분 / 미기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미술치료 프로그램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분석기준은 김선정(2010)[22], 박치영(2018)[23], 이재향(2015)[24], 전혜민(2018)[25]등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프로그램유형, 미술치료 프로그램 목표, 미술치료 매체, 미술치료 표현 방법 별 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부적응을 관련한 미술치료 동향분석으로 다중변인(종석변인)의 연구일 경우 미술치료 프로그램 분석에 있어 다소 포괄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단일변인인 부적응 관련 연구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매체와 표현 방법 분석에서 단일 매체나 표현 방법인 특정프로그램 연구의 논문일 경우는 빈도 분석에 있어 다소 편향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유형은 선행연구 김선정(2010)[26], 박치영(2018)[27], 이재향(2015)[28]을 참고하여 특정프로그램, 복합프로그램, 타 중재 접목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분류했다. 특정프로그램은 특정 기법이나 매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며, 복합프로그램은 혼합의 기법 및 매체를 이용한 프로그램 구성을 말한다. 타 중재 접목 프로그램은 다른 중재를 접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을 말한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목표 선행연구 박치영(2018), 이지현(2016)[29]의 분석

---

22) 김선정(2010). ADHD 아동을 위한 국내 미술치료 중재연구 현황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박치영(2018).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집단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 2002년 - 2017년 국내 학위논문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이재향(2015). 초등학생의 사회성 관련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가천대학교 스포츠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 전혜민(2019). 여성의 우울에 대한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김선정(2010). ADHD 아동을 위한 국내 미술치료 중재연구 현황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 박치영(2018).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집단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 2002년 - 2017년 국내 학위논문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 이재향(2015). 초등학생의 사회성 관련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가천대학교 스포츠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9) 이지현(2016)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연구 현황 분석 및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준과 분석대상 논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10가지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초기, 중기, 후기 단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분석대상 논문 중 초기, 중기, 후기의 단계 구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지 않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4개 이상의 단계로 구분된 경우 중간단계로 합쳐 중기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매체는 최인혁(2014)[30]을 참고하여 평면(건식), 평면(습식), 입체(건식), 입체(습식), 비정형, 종이 및 바탕, 도구 매체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미술치료표현 방법은 권상구(2000)[31]의 표현기법을 참고하여 그리기, 만들기, 붙이기, 찍기, 꾸미기로 범주화하였으며 연령이 아동인 것을 고려해 놀이 표현 방법을 추가하여 총 6가지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분류하여 분석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표현 방법의 빈도를 초기 중기, 후기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표 8> , <표 9> , <표 10> 과 같다.

30) 최인혁 외(2014). 매체 in 미술치료. 파주: 양서원.
31) 권상구(2000). (예술과 디자인을 위한) 표현기법. 서울: 미진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8> 미술치료 프로그램 유형의 분석기준

항목	구분	세부내용
미술치료 프로그램유형	특정프로그램	특정 기법 및 매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구성 (예 : 콜라주, 점토 매체, 만다라 등)
	복합프로그램	혼합 기법 및 매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구성
	타 중재 접목 프로그램	다른 중재를 접목하여 프로그램 구성 (예 : 게슈탈트, 애착, 발도르프색채, 놀이 등)

<표 9>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목표 분석기준

항목	구분	세부내용
미술치료 프로그램 목표	흥미 유발	흥미 유발, 매체 탐색 등
	관계 형성	라포형성, 친밀감 형성, 관계 형성, 마음열기, 친화력 강화 등
	자기표현	자기표현, 자기표출
	감정인식 및 표현	감정인식, 감정표출, 긴장 완화, 긴장 이완, 욕구표출, 자기 감정표현, 우울, 불안 해소 등
	자기인식 및 이해	자기인식, 자기 탐색, 자기표출, 자기표현, 욕구 탐색 및 표출 등
	타인인식 및 이해	타인 이해, 타인 정서 이해, 타인 감정 인식, 타인 배려
	긍정적 자아상 및 자아존중감	긍정적 자아상, 긍정적 자아 정체감, 자신감, 자존감, 자아존중감 등
	문제행동	공격성감소, 부적응 행동 조절
	사회성	사회적 상호작용, 신뢰감형성, 긍정적인 모-자 상호작용, 의사소통증가, 관계회복 등
	기타	아동의 이해와 애착, 프로그램이해 등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0>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매체 및 표현 방법 분석기준

항목	구분	세부내용
미술치료 표현 매체	평면(건식)매체	연필, 색연필, 크레파스, 사인펜/매직, 파스텔, 파스넷
	평면(습식)매체	물감, 불어펜, 먹물
	입체(건식)매체	우드락/폼보드, 비누, 종이상자, 수수깡, 반짝이 풀, 스팽글, 단추
	입체(습식)매체	찰흙, 점토, 컬러 점토, 지점토, 클레이, 석고/석고붕대
	비정형 매체	면도크림, 물, 비눗물, 밀가루, 모래
	종이 및 바탕 매체	명찰, 도화지/켄트지, 전지, 화선지, 신문지, A4용지, 골판지, 색종이, 색 도화지, 하드보드지, 사포지, 잡지, 한지
	도구 매체	붓, 팔레트, 물통, 풀, 본드, 테이프, 조각칼/점토칼, 자, 가위
미술치료표현 방법		그리기, 만들기, 붙이기, 꾸미기, 놀이

4. 자료처리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국내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연도별, 연구 대상, 연구 설계, 미술치료 구조,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분석 항목 및 분석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수집한 자료들의 처리는 Microsoft Excel 201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통계를 산출하였으며 표와 그래프로 결과를 제시하여 나타내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 연구 석사학위 논문 56편과 박사학위 논문 3편 총 59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도별, 연구 대상, 연구 설계, 미술치료 구조,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분석기준에 따라 분석했다.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를 위하여 재검토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논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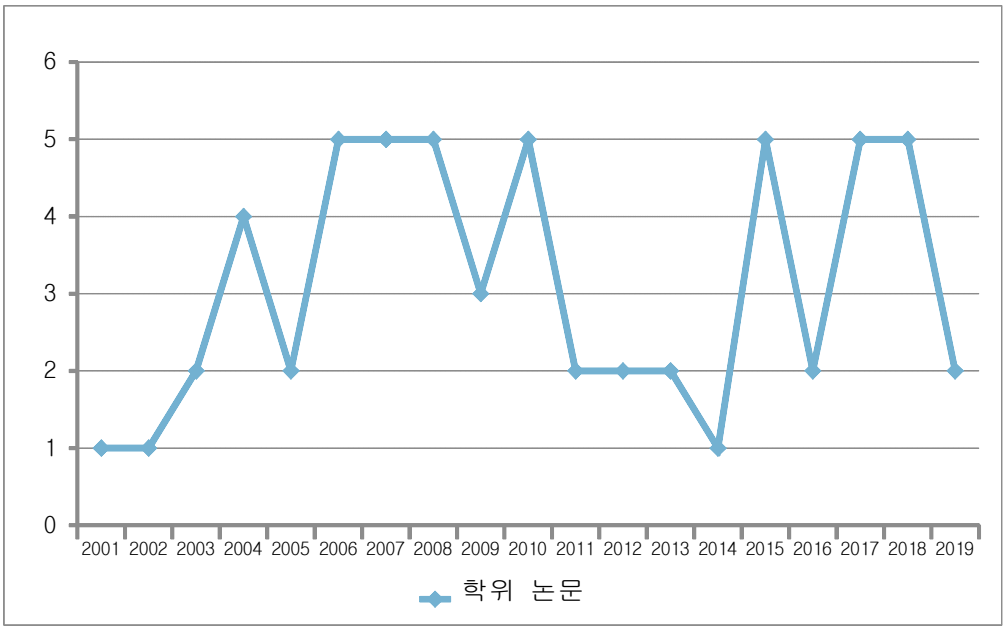
부적응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연구 논문의 연도별로 논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1> 과 같다. 2001년 1편(1.7%)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4편(6.8%)으로 급증하여 2010년까지 증감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4년에는 1편(1.7%)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01년부터 2019년까지 18년간 평균 3.3편이 발행되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1> 연도별 학위 논문 수 N=59(%)

연도	학위논문		합계(%)
	석사	박사	
2001	1(1.7)	-	1(1.6)
2002	1(1.7)	-	1(1.6)
2003	2(3.4)	-	2(3.4)
2004	4(6.8)	-	4(6.8)
2005	2(3.4)	-	2(3.4)
2006	5(8.5)	-	5(8.5)
2007	5(8.5)	-	5(8.5)
2008	5(8.5)	-	5(8.5)
2009	1(1.7)	2(3.4)	3(5.1)
2010	4(6.8)	1(1.7)	5(8.5)
2011	2(3.4)	-	2(3.4)
2012	2(3.4)	-	2(3.4)
2013	2(3.4)	-	2(3.4)
2014	1(1.7)	-	1(1.6)
2015	5(8.5)	-	5(8.5)
2016	2(3.4)	-	2(3.4)
2017	5(8.5)	-	5(8.5)
2018	5(8.5)	-	5(8.5)
2019	2(3.4)	-	2(3.4)
합계(%)	56(96.6)	3(3.4)	59(10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1> 연도별 학위 논문 수

2. 연구 대상 분석

연구 대상의 분석항목은 대상의 연령(학년), 성별, 대상의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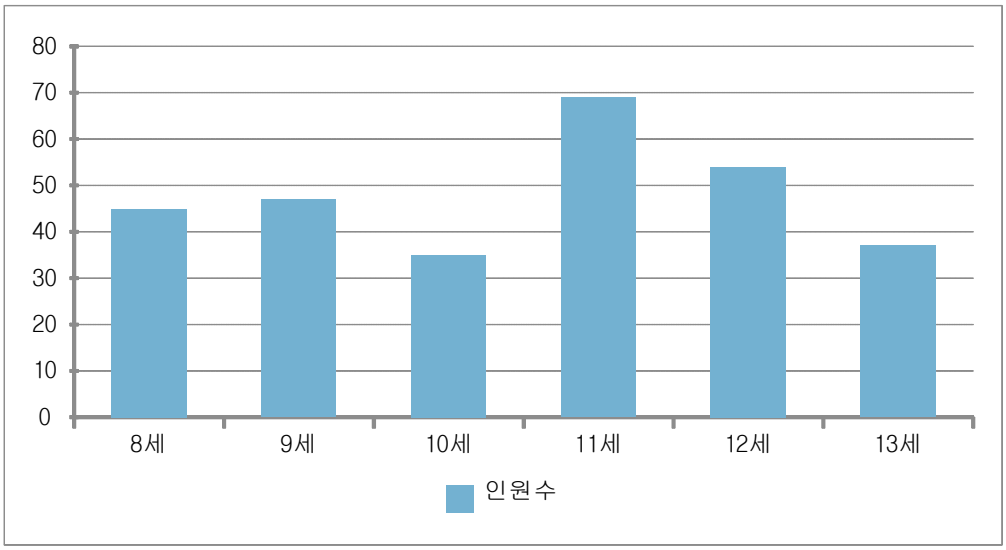
1) 연구 대상의 연령(학년)

부적응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연구의 연구 대상의 연령(학년)의 수치화 하여 <표 12> 로 나타내었으며, 대상 연령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그림1> 과 같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2> 연구 대상의 연령(학년) N=286(%)

연령 (학년)	저학년			고학년			합계 (%)
	8세 (1학년)	9세 (2학년)	10세 (3학년)	11세 (4학년)	12세 (5학년)	13세 (6학년)	
인원수 (%)	45 (15.8)	46 (16.1)	35 (12.2)	69 (24.1)	54 (18.9)	37 (12.9)	286 (100)
계(%)	126(44.1)			160(55.9)			



<그림 2> 연구 대상의 연령(학년)

분석 대상 논문에서 연구 대상 연령(학년) 중 연령 및 학년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4편을 제외하고 54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집단으로 한 미술치료의 논문의 경우 해당 연령의 수만큼 중복으로 표기했다. 그 결과 연구 대상의 참여 인원수는 총 286명이다. 11세(4학년)가 69명(23.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2세(5학년)가 54명(18.6%), 9세(2학년) 47명(16.2%), 8세(1학년) 45명(15.5%), 10세(3학년) 35명(12%), 13세(6학년) 37명(12.7%) 순으로 나타났다.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수가 많은 이유는 11-13세시기에는 소속감과 지위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는 시기로서, 학교생활의 적응 또는 타 집단 안에서의 적응 또는 부적응을 다루어 줘야 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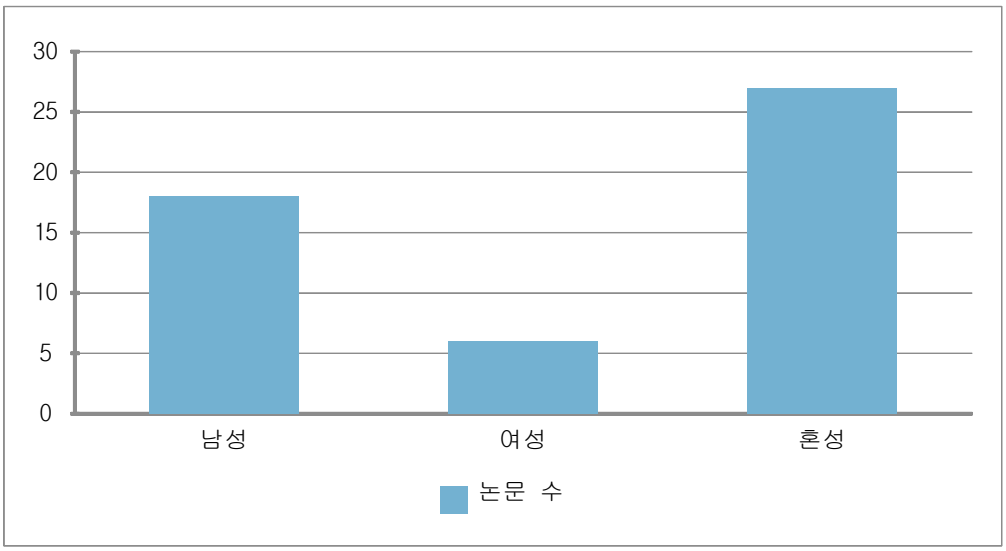
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연구 대상의 성별

부적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대상의 성별에 관한 분석이다. 연구 대상의 성별을 남성, 여성, 혼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 연구 대상의 성별 N=51(%)

구분	논문 수	백분율 (%)
남성	18	(35.3)
여성	6	(11.8)
혼성	27	(52.9)
합계(%)	51	(100.0)



<그림 3> 연구 대상의 성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연구 대상의 성별을 기재하지 않은 논문 8편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표 13> 과 같이 수치화 하고 <그림 2> 와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총 51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혼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27편(52.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18편(35.3%)이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6편(11.8%)으로 나타났다.

3) 연구 대상의 유형

연구 대상의 유형을 일반적 유형과 의학적 진단 유형으로 분류해 보았다. 일반적 유형은 일반, 가족, 다문화, 시설이용 및 거주로 세분화하였으며, 의학적 진단은 행동장애, 발달 및 학습장애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연구 대상의 유형 N=60(%)

구분	세부구분	계(%)	합계(%)
일반적 유형	일반	45(75.0)	50(83.3)
	가족	1(1.7)	
	다문화	2(3.3)	
	시설이용 및 거주	2(3.3)	
의학적 진단	행동장애	6(10.0)	10(16.7)
	발달 및 학습장애	4(6.7)	
합계(%)		60(100.0)	

연구 대상의 유형에 따른 분석은 <표 14> 에서 제시하였으며, 하나의 연구에서 대상의 유형을 일반적 유형과 의학적 진단을 받은 아동을 혼합하여 진행한 경우 중복처리 하여 총 60편으로 일반적 유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0편(83.3%)으로 가장 많았고, 의학적 진단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0편(16.7%)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부적응을 관련한 연구 유형이 일반적 유형을 대상으로 한 아동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많은 것으로 보아 의학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닌 아동 개인의 내적인 문제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도 부적응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 연구 설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 결과 분석방법과 연구 설계, 연구주제, 연구 도구라는 4가지 영역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연구 결과 분석방법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유형은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 통합적 분석 그리고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 연구 결과 분석방법 N=59(%)

구분	계(%)
양적 분석	15(25.4)
질적 분석	7(11.9)
통합적 분석	35(59.3)
기타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2(3.4)
합계(%)	**59(100.0)**

연구 결과 분석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표 15> 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한 통합적 분석의 논문이 35편(59.3%)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양적 분석 15편(25.4%), 질적 분석 7편(11.9%), 기타 2편(3.4%)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유추해 볼 때 실험에 대한 효과성을 증명하고, 실험을 통해 아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자세하게 나타내기 위하여서 양적과 질적인 분석을 병행하는 통합적 연구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연구 설계

연구 설계의 결과는 다음 <표 16> 과 같으며 단일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29편(44.1%)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실험-통제집단 14편(23.7%), 사례연구 13편(22.0%), 단일피험자 5편(8.5%), 조사연구 1편(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연구 설계 N=59(%)

구분	계(%)
실험-통제집단	14(23.7)
단일집단	26(44.1)
단일피험자	5(8.5)
조사연구	1(1.7)
사례연구	13(22.0)
합계(%)	**59(100.0)**

3) 연구주제

연구 설계의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은 단일변인과 다중변인(종속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7> 연구 주제 N=59(%)

구분	계(%)
단일변인	33(55.9)
다중변인(종속변인)	26(44.1)
합계(%)	**59(100.0)**

연구주제에 대한 결과는 <표 17> 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부적응 주제만을 다룬 단일변인이 33(55.9%)편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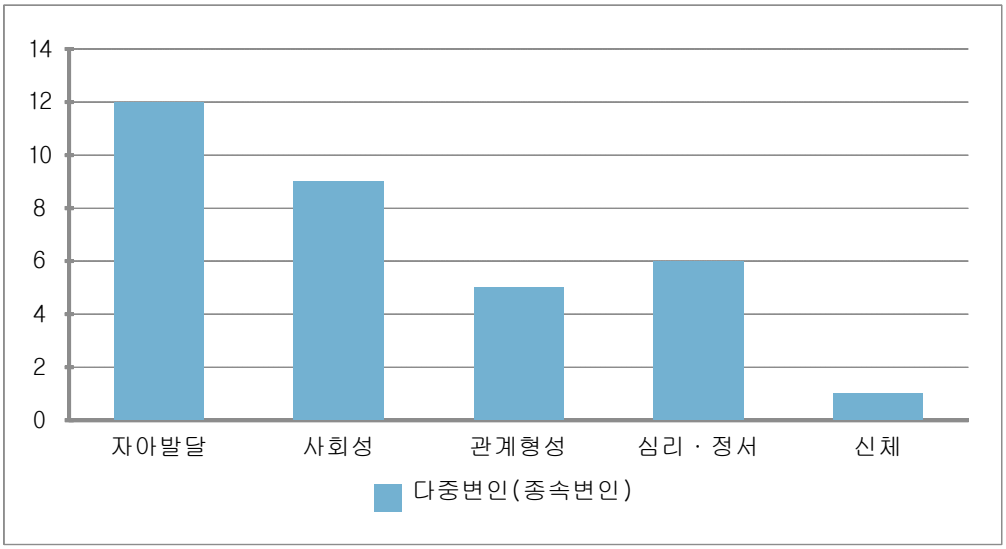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적응의 변인뿐만 아니라 타 주제와 병행하여 연구한 다중변인이 26(44.1%)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중변인(종속변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8> 다중변인(종속변인) N=33(%)

구분	계(%)
자아발달	12(36.4)
사회성	9(27.3)
관계 형성	5(15.2)
심리 · 정서	6(18.2)
신체	1(3.0)
합계(%)	**33(100.0)**



<그림 4> 다중변인(종속변인)

다중변인(종속변인)에 대한 결과는 <표 18> 과 같이 수치화하였으며, <그림 4> 와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다중변인을 5가지로 범주화하여 분류하였으며, 한 연구에 변인이 2개 이상일 경우 중복으로 처리하여 보았다. 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결과 총 33편 중 자아발달 12편(36.4%), 사회성 9편(27.3%), 심리·정서 6편(18.2%), 관계 형성 5편(15.2%), 신체 1편(3.0%)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아발달을 다중변인(종속변인)으로 연구한 논문이 많았다는 것이다. 자아발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또래 관계 속에서도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아발달과 부적응이 서로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함께 연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4) 연구 도구

연구 설계에 따른 연구 도구에 대한 분석으로 객관적 검사 도구와 투사 검사 도구로 구분하였으며, 각 검사 도구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9> 연구 도구 N=164(%)

구분	계(%)
객관적 검사 도구	88(53.7)
투사 검사 도구	76(46.3)
합계(%)	**164(100.0)**

연구 설계에서 연구 도구의 결과는 <표 19> 와 같으며, 총 59편의 연구논문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는 총 164회로 나타났다. 객관적 검사 도구 88회(53.7%)가 실시되었으며, 투사 검사 도구는 76회(46.3%)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검사 도구와 투사 검사 도구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0>, <표 21> 로 나타냈으며, 주요 연구 도구를 <그림 5> 와 같이 나타내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0> 객관적 검사 도구 N=88(%)

연구 도구	세부 내용	계(%)
객관적 검사 도구	학교생활 적응검사	12(13.6)
	학교적응척도	8(9.1)
	학교부적응검사	4(4.5)
	한국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 (K-CBCL)	17(19.3)
	또래 관계척도(NRI)	4(4.5)
	교우관계검사	1(1.1)
	사회성검사척도	4(4.5)
	사회성숙도검사	1(1.1)
	사회성기술평정척도(SSRS)	6(6.8)
	자기조절능력척도	1(1.1)
	자기표현력평정척도	1(1.1)
	자기효능감척도(SES)	5(5.7)
	자아존중감검사척도	6(6.8)
	벅스행동평정척도(BBRS)	2(2.3)
	학습동기검사	2(2.3)
	정서인식력검사	2(2.3)
	기타 (회복탄력성검사척도,conners 교사용 평정척도, 적응행동검사(NISE-SAB) 등)	12(13.2)
합계(%)		88

객관적 검사 도구는 총 88회 실시되었으며, 한국 아동·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검사가 17회, 학교생활 적응검사 12회 학교적응척도 8회, 사회성 기술 평정척도(SSRS) 6회, 자아존중감 검사척도 6회, 자기효능감 척도(SES) 5회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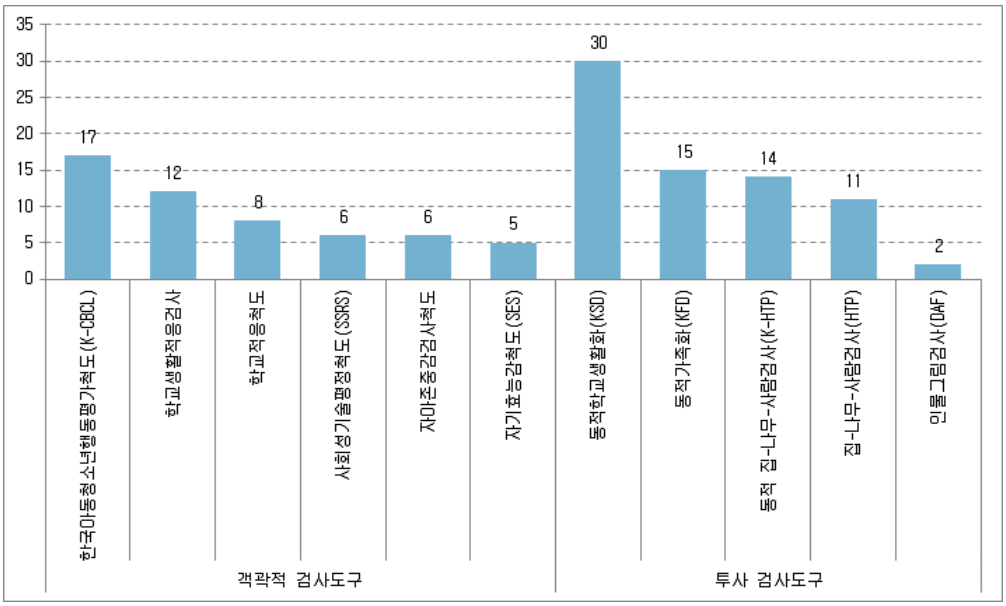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1> 투사 검사 도구 N=76(%)

연구 도구	세부 내용	계(%)
투사 검사 도구	동적 학교생활화(KSD)	30(39.5)
	집-나무-사람검사(HTP)	11(14.5)
	동적 집-나무-사람검사(K-HTP)	14(18.4)
	동적가족화(KFD)	15(19.7)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는 사람(PPAT)	1(1.3)
	빗속의 사람(PITR)	1(1.3)
	인물그림검사(DAF)	2(2.6)
	풍경구성법(LMT)	1(1.3)
	동물가족화(SCT)	1(1.3)
합계(%)		76(100.0)

투사 검사 도구는 총 76회 실시되었으며, 동적 학교생활화(KSD) 30회, 동적가족화(KSD), 동적 집-나무-사람검사(K-HTP) 14회, 집-나무-사람검사(HTP) 11회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5> 주요 객관적 검사 도구 및 투사검사 도구

위의 결과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객관적 검사 도구가 투사 검사 도구보다 더 많이 실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객관적 검사 도구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 아동·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검사와 학교생활 적응 검사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투사 검사 도구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동적 학교생활화(KSD), 동적가족화(KSD)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동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생활 관련 검사를 통하여 아동의 부적응적 문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학교 관련 검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4. 미술치료 구조

미술치료 구조는 치료환경, 치료형태, 치료형태 별 활동, 참여 인원수, 총 회기 수, 주당 회기 수, 회기 별 치료 시간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치료환경

미술치료 구조에 대한 치료환경을 학교, 사설기관, 복지시설, 기타 그리고 미기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22> 와 같다.

<표 22> 치료환경 N=59(%)

구분	계(%)
학교	34(57.6)
사설기관	8(13.6)
복지시설	13(22.0)
기타	2(3.4)
미기재	2(3.4)
합계(%)	**59(100.0)**

<표 22> 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치료환경이 미기재 된 논문 2편(3.4%)을 포함하여 총 59편의 연구 논문 중에서 34편(57.6%)이 학교에서 실시되었으며, 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상담센터 등)에서 진행된 논문이 13편(22.0%), 사설기관(미술학원, 치료실 등) 8편(13.6%), 기타 2편(3.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적응 아동에 대한 미술치료 진행 환경은 학교가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치료형태

미술치료 구조에 대한 치료형태는 개인, 집단 그리고 가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23> 과 같다.

<표 23> 치료형태 N=59(%)

구분	계(%)
개인	13(22.0)
집단	45(76.3)
가족	1(1.7)
합계(%)	**59(100.0)**

미술치료 구조에 대한 치료형태는 집단으로 진행하는 치료형태가 45편(76.3%)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수로 나타났으며, 개인으로 진행하는 치료형태가 13편(22.0%), 가족치료가 1편(1.7%)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유추해 볼 때 부적응의 문제를 가진 아동의 경우 소극적이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집단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적응적인 경험과 자발적 활동을 통하여 집단 안에서의 소속감과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촉진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치료적 목표를 위하여 집단으로 실시하는 치료형태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치료형태 별 활동

미술치료 구조에 대한 치료형태 별 활동을 개인 치료 : 개인 활동, 집단 치료 : 개인 활동, 집단 치료 : 개인, 집단 활동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24> 와 같이 나타내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4> 치료형태 별 활동 N=59(%)

구분	계(%)
개인 치료 : 개인 활동	13(22.0)
집단 치료 : 개인 활동	18(30.5)
집단 치료 : 개인, 집단 활동	28(47.5)
합계(%)	**59(100.0)**

분석 논문의 치료형태 별 활동은 <표 24> 와 같이 집단치료 안에서의 개인, 집단 활동을 병행하는 치료형태가 28편(47.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집단치료 안에서 개인 활동 위주의 치료형태가 18편(30.5%), 개인 치료 안에서 개인 활동의 치료형태가 13편(22.0%)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집단치료 안에서 개인과 집단 활동을 병행한 논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집단 안에서 개인 활동을 통해 자기표현과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정화를 할 수 있으며, 집단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4) 참여 인원수

미술치료 구조에 대한 참여 인원수는 1명, 2명, 3-5명, 6-10명, 11-15명, 16-20명, 21명 이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25> 와 같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5> 참여 인원수 N=59(%)

참여 인원수	계(%)
1명	13(22.0)
2명	6(10.2)
3-5명	18(30.5)
6-10명	14(23.7)
11-15명	4(6.8)
16-20명	2(3.4)
21명 이상	2(3.4)
합계(%)	**59(100.0)**

논문별 참여 인원수는 <표 25> 와 같이 3-5명이 18편(30.5%)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는 6-10명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14편(23.7%)으로 나타났으며, 1명 13편(22.0%), 2명 5편(10.2%), 11-15명 4편(6.8%), 16-20명 2편(3.4%), 21명 이상 2편(3.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부적응 미술치료의 참여 인원수는 3-5명의 집단으로 구성한 미술치료 연구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총회기 수

미술치료 구조에 대한 총회기 수를 10회기 미만, 10-15회기, 16-20회기, 21-25회기, 26회기 이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26> 과 같이 나타내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6> 총회기 수 N=58(%)

총회기 수	계(%)
10회기 미만	2(3.4)
10-15회기	28(48.3)
16-20회기	17(29.3)
21-25회기	4(6.9)
26회기 이상	7(12.1)
합계(%)	**58(100.0)**

미술치료 구조의 총회기 수는 조사연구 1편을 제외한 58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10-15회기가 28편(48.3%)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16-20회기가 17편(29.3%)으로 나타났다. 26회기 이상이 7편(12.1%), 21-25회기 4편(6.9%), 10회기 미만 2편(3.4%) 순으로 나타났다.

6) 주당 회기 수

미술치료 구조에 대한 주당 회기 수를 주 1회, 주 1-2회, 주 2회, 주 3회, 주 4회로 분류하여 나타냈다. 그 결과는 다음 <표 27> 과 같이 나타내었다.

<표 27> 주당 회기 수 N=58(%)

주당 회기 수	계(%)
주 1회	32(55.2)
주 1-2회	4(6.9)
주 2회	16(27.6)
주 3회	5(8.6)
주 4회	1(1.7)
합계(%)	**58(10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주당 회기 수는 조사연구 논문 1편을 제외한 58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 1회가 32편(55.2%)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 2회 16편(27.6%), 주 3회 5편(8.6%), 주 1-2회 4편(6.9%), 주 4회 1편(1.7%)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적응 아동 관련 미술치료의 주당 회기 수는 주 1회의 회기를 진행하는 미술치료 연구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7) 회기 별 치료 시간

미술치료 구조에 대한 회기 별 치료 시간은 30-60분, 70-90분, 100-120분, 미기재로 분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8> 회기 별 치료 시간 N=58(%)

회기 별 치료 시간	계(%)
30-60분	38(65.5)
70-90분	15(25.9)
100-120분	2(3.4)
미기재	3(5.2)
합계(%)	**58(100.0)**

회기 별 치료 시간의 결과는 조사연구 1편을 제외한 58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30-60분 38편으로 전체 비중의 65.5%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70-90분 15편(25.9%), 미기재 3편(5.2%), 100-120분 2편(3.4%) 순으로 나타났다. 회기 별 치료의 평균 시간은 58분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부적응 아동을 관련 미술치료의 회기 별 치료 시간은 30-60분의 치료 시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논문이 아동의 연령과 집중시간을 고려하여 50여 분의 치료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미술치료 프로그램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분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 유형, 미술치료 프로그램 목표, 미술치료 프로그램 표현 매체, 미술치료 프로그램 표현 방법으로 분류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미술치료 프로그램 유형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유형은 한 가지 매체나 재료 또는 기법을 주로 구성하는 특정프로그램과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혼합하여 구성한 복합프로그램, 타 중재를 접목하여 실시한 타 중재 접목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9>와 같다.

<표 29> 미술치료 프로그램 유형 N=58(%)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세부 내용	계(%)
특정프로그램	명화 이미지, 점토(2편), 만다라, 점성 매체, 십이지	6(10.3)
복합프로그램	-	46(79.4)
타 중재 접목 프로그램	게슈탈트 이론, 놀이 활용(3편), 발도르프색채이론, 애착 이론	6(10.3)
합계(%)		58(100.0)

부적응 아동 관련 미술치료 연구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유형은 조사연구 논문 1편을 제외한 58편을 대상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복합프로그램이 46편으로 79.4%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중재 접목 프로그램은 6편(10.3%)으로 놀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3편(5.2%), 게슈탈트이론, 발도르프색채이론, 애착이론이 각각 1편(1.7%)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정프로그램 6편(10.3%)으로 점토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2편(3.5%)으로 나타났으며, 명화 이미지, 만다라, 점성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각각 1편(1.7%)으로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결과 부적응 아동 관련 미술치료에 대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유형은 특정 매체와 기법이 아닌 여러 기법과 매체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구성한 복합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술치료 프로그램 목표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목표는 문제행동, 흥미 유발, 관계 형성, 감정인식 및 표현, 자기표현, 자기인식 및 자기이해, 타인인식 및 타인이해, 긍정적 자아상, 사회성,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미술치료 초기, 중기, 후기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0> 미술치료 프로그램 목표 N=148(%)

목표	계(%)
문제행동	7(4.7)
흥미 유발	6(4.1)
관계 형성	31(20.7)
감정인식 및 표현	32(21.5)
자기표현	12(8.1)
자기인식 및 자기이해	19(12.7)
타인인식 및 타인이해	4(2.7)
긍정적 자아상	17(11.4)
사회성	11(7.4)
기타	10(6.7)
합계(%)	**149(100.0)**

부적응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의 프로그램 목표에 대한 결과는 <표 30> 과 같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목표는 초기, 중기, 후기를 다 합하여 총 149번으로 나타났으며, 감정인식 및 표현과 관련된 목표가 32번(21.6%)으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관계 형성과 관련된 목표가 31번(20.7%), 자기인식 및 자기이해를 관련한 목표가 19번(12.7%), 긍정적 자아상을 관련한 목표가 17번(11.4%), 자기표현을 관련한 목표가 12번(8.1%), 사회성을 관련한 목표가 11번(7.4%), 기타 10번(6.7%), 문제행동을 관련한 목표가 7번(4.7%), 흥미 유발 6번(4.1%), 타인인식 및 타인이해 4번(2.7%)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부적응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의 프로그램 목표는 감정인식 및 표현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미술치료의 초기, 중기, 후기 별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세부목표는 다음 <표 31>, <표 32>, <표 33> 과 같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31> 미술치료 프로그램 목표 - 초기 N=47(%)

목표	세부목표	초기	계(%)
문제행동	공격성 감소	-	-
	부적응 행동 감소	-	
흥미 유발	흥미 유발	4(8.5)	4(8.5)
관계 형성	관계 형성	5(10.6)	20(42.6)
	관계회복	-	
	친밀감형성	7(14.9)	
	신뢰감형성	7(14.9)	
	마음열기	1(2.1)	
감정인식 및 표현	감정인식	1(2.1)	12(25.5)
	긴장완화	3(6.4)	
	감정이완	1(2.1)	
	감정표출	4(8.5)	
	욕구표출	2(4.3)	
	정서인식	-	
	정서적표현	1(2.1)	
	정서적안정감	-	
	부정적 정서해소	-	
자기표현	자기표현	1(2.1)	2(4.3)
	자기표출	1(2.1)	
자기인식 및 자기이해	자기인식	3(6.4)	7(14.9)
	자기탐색	2(4.3)	
	자기이해 · 수용	2(4.3)	
	자기조절	-	
	자기배려	-	
	자기변화	-	
타인인식 및 타인이해	타인감정인식	-	-
	타인정서이해	-	
	타인배려	-	
긍정적 자아상	긍정적 자아정체감	-	-
	긍정적자아상	-	
	자존감향상	-	
	자신감형성	-	
	자아개념	-	
사회성	상호작용	-	1(2.1)
	의사소통	-	
	사회적 기술	-	
	사회적 소속감	-	
	사회적 상호작용	-	
	적응력향상	1(2.1)	
기타	애착형성	1(2.1)	1(2.1)
	성취감증진	-	
	협응력향상	-	
	집중력향상	-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이해	-	
	상황에 대한 계획과 실행	-	
	해결지향적태도	-	
합계(%)		47(10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미술치료 초기의 프로그램 목표는 총 47번의 목표가 실시되었으며 관계 형성이 20번(42.6%)으로 가장 많은 치료목표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감정인식 및 표현이 12번(25.5%), 자기인식 및 이해 7번(14.9%), 흥미 유발 4번(8.5%), 자기표현 2번(4.3%), 사회성과 기타가 각각 1번(2.1%) 순으로 나타났다. 초기 프로그램의 세부 목표를 살펴보면 관계 형성에서도 친밀감과 신뢰감 형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인식 및 표현에서는 감정표현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로 유추해 볼 때 미술치료의 초기 단계에서는 내담자와의 신뢰감형성이 형성되지 못하면 상담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치료동맹을 잘 형성했을 때에는 성공적인 상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중기단계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목표는 다음 <표 32> 와 같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32> 미술치료 프로그램 목표 - 중기 N=67(%)

목표	세부목표	중기	계(%)
문제행동	공격성 감소	4(6.0)	6(9.0)
	부적응 행동 감소	2(3.0)	
흥미 유발	흥미 유발	3(4.5)	3(4.5)
관계 형성	관계 형성	1(1.5)	6(9.0)
	관계회복	1(1.5)	
	친밀감형성	1(1.5)	
	신뢰감형성	2(3.0)	
	마음열기	1(1.5)	
감정인식 및 표현	감정인식	1(1.5)	20(29.7)
	긴장완화	1(1.5)	
	감정이완	3(4.5)	
	감정표출	7(10.3)	
	욕구표출	2(3.0)	
	정서인식	1(1.5)	
	정서적표현	3(4.5)	
	정서적안정감	-	
	부정적 정서해소	2(3.0)	
자기표현	자기표현	4(6.0)	5(7.5)
	자기표출	1(1.5)	
자기인식 및 자기이해	자기인식	3(4.5)	8(11.9)
	자기탐색	-	
	자기이해 · 수용	3(4.5)	
	자기조절	1(1.5)	
	자기배려	-	
	자기변화	1(1.5)	
타인인식 및 타인이해	타인감정인식	1(1.5)	2(3.0)
	타인정서이해	1(1.5)	
	타인배려	-	
긍정적 자아상	긍정적 자아정체감	1(1.5)	5(7.5)
	긍정적자아상	1(1.5)	
	자존감향상	1(1.5)	
	자신감형성	1(1.5)	
	자아개념	1(1.5)	
사회성	상호작용	4(6.0)	7(10.4)
	의사소통	2(3.0)	
	사회적 기술	1(1.5)	
	사회적 소속감	-	
	사회적 상호작용	-	
	적응력향상	-	
기타	애착형성	1(1.5)	5(7.5)
	성취감증진	1(1.5)	
	협응력향상	1(1.5)	
	집중력향상	1(1.5)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이해	1(1.5)	
	상황에 대한 계획과 실행	-	
	해결지향적태도	-	
합계(%)		67(10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미술치료 중기의 프로그램 목표는 총 67번으로 감정인식 및 표현과 관련된 목표가 20번(29.7%)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자기인식 및 이해와 관련한 목표가 8번(11.9%)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성을 관련한 목표가 7번(10.4%), 문제행동과 관계 형성 관련한 목표가 각각 6번(9.0%), 자기표현과 긍정적 자아상, 기타 관련 목표 각각 5번(7.5%), 흥미 유발 관련한 목표 3번(4.5%), 타인인식 및 이해 관련한 목표가 2번(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 자신의 감정 인식과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갖는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분위기와 흐름을 느끼거나 예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아동이 사회 환경 속에 살아갈 때, 사회적으로 적절한 감정표현을 할 수 있게 되리라 판단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33> 미술치료 프로그램 목표 - 후기 N=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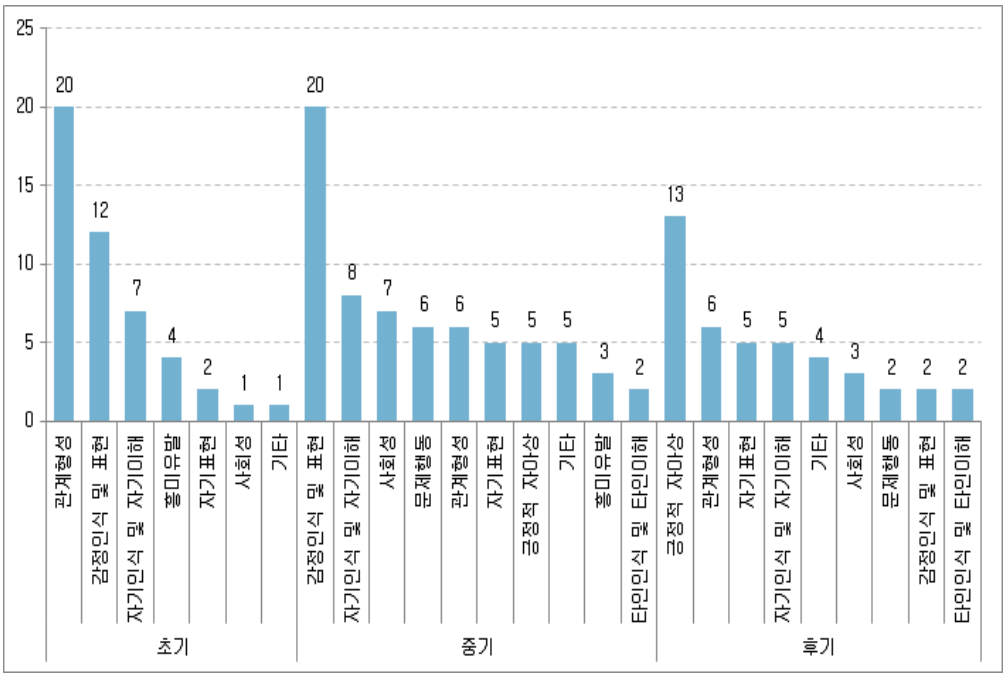
목표	세부목표	후기	계(%)
문제행동	공격성 감소	-	2(4.8)
	부적응 행동 감소	2(4.8)	
흥미 유발	흥미 유발	-	-
관계 형성	관계 형성	1(2.4)	6(14.3)
	관계회복	2(4.8)	
	친밀감형성	-	
	신뢰감형성	2(4.8)	
	마음열기	1(2.4)	
감정인식 및 표현	감정인식	-	2(4.8)
	긴장완화	-	
	감정이완	-	
	감정표출	-	
	욕구표출	-	
	정서인식	-	
	정서적표현	1(2.4)	
	정서적안정감	1(2.4)	
	부정적 정서해소	-	
자기표현	자기표현	4(9.5)	5(11.9)
	자기표출	1(2.4)	
자기인식 및 자기이해	자기인식	-	5(11.9)
	자기탐색	-	
	자기이해 · 수용	2(4.8)	
	자기조절	2(4.8)	
	자기배려	1(2.4)	
	자기변화	-	
타인인식 및 타인이해	타인감정인식	-	2(4.8)
	타인정서이해	12.4)	
	타인배려	1(2.4)	
긍정적 자아상	긍정적 자아정체감	1(2.4)	13(30.9)
	긍정적자아상	2(4.8)	
	자존감향상	7(16.5)	
	자신감형성	2(4.8)	
	자아개념	1(2.4)	
사회성	상호작용	-	3(7.1)
	의사소통	-	
	사회적 기술	1(2.4)	
	사회적 소속감	1(2.4)	
	사회적 상호작용	1(2.4)	
	적응력향상	-	
기타	애착형성	1(2.4)	4(9.5)
	성취감증진	-	
	협응력향상	-	
	집중력향상	-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이해	1(2.4)	
	상황에 대한 계획과 실행	1(2.4)	
	해결지향적태도	1(2.4)	
합계(%)		42(10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미술치료 후기단계의 목표는 총 42번 진행되었으며 그 중 긍정적 자아상 관련한 목표가 13번(30.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계 형성을 관련한 목표 6번(14.2%) 자기표현과 자기인식 및 자기이해 관련한 목표가 각각 5번(11.9%), 기타 관련한 목표 4번(9.5%), 사회성 관련한 목표 3번(7.1%), 감정인식 및 표현과 타인인식 및 타인이해 그리고 흥미 유발 관련한 목표가 각각 2번(4.8%)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유추해 볼 때 후기단계는 미술치료를 맺는 단계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부적응 아동의 미술치료 후기단계는 긍정적 자아상이 부적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된다.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혼돈된 정서적 상태를 유발할 수 있고 아동의 표정과 행동에서의 부적응 상태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타인과 사회 환경 속에서 원활한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긍정적 자아상이 미술치료 후기 목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생각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6>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초기, 중기, 후기의 주요 목표를 <그림6>과 같이 그래프로 정리하여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 결과를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미술치료 초기에는 관계 형성, 감정인식 및 표현, 자기인식 및 자기이해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기에서는 감정인식 및 표현, 자기인식 및 자기이해, 사회성, 문제행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후기에서는 긍정적 자아상, 관계 형성, 자기표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결과를 공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수용되고 만족되는지에 따라 부적응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미술치료 프로그램 표현 매체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표현 매체는 평면(건식), 평면(습식), 입체(건식), 입체(습식), 비정형, 종이 및 바탕, 도구 매체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매체별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각 매체 별로 초기, 중기, 후기 단계로 나눠 분석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했다. 프로그램의 표현 매체에 따른 결과를 <표 34> 로 나타냈다.

<표 34> 미술치료 프로그램 표현 매체 N=674

매체분류	세부매체	초기	중기	후기	소계	계
평면 (건식)	연필	27	30	16	73	220
	색연필	17	16	6	39	
	크레파스	20	26	7	53	
	사인펜/매직	12	26	10	48	
	파스텔	-	6	-	6	
	파스넷	-	1	-	1	
계		76	105	39	220	
평면 (습식)	물감	12	24	10	46	50
	불어펜	-	-	2	2	
	먹물	-	2	-	2	
계		12	26	12	50	
입체 (건식)	우드락,폼포드	-	2	-	2	12
	비누	1	-	-	1	
	종이상자	-	3	2	5	
	수수깡	-	1	-	1	
	반짝이 풀	-	1	-	1	
	스팽글	-	1	-	1	
	단추	-	1	-	1	
계		1	9	2	12	
입체 (습식)	찰흙	2	5	2	9	31
	점토	-	3	1	4	
	컬러 점토	-	-	1	1	
	지점토	4	3	4	11	
	클레이	-	1	1	2	
	석고/석고붕대	1	1	2	4	
계		7	13	11	31	
비정형	면도크림	-	1	4	5	23
	물	2	5	1	8	
	비눗물	4	1	-	5	
	밀가루	2	1	1	4	
	모래	-	1	-	1	
계		8	9	6	23	
종이 및 바탕	명찰	1	-	-	1	218
	도화지/켄트지	29	47	18	94	
	전지	5	12	2	19	
	화선지	-	2	-	2	
	신문지	2	4	-	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4용지	23	17	4	44	
	골판지	-	2	1	3	
	색종이	5	12	1	18	
	색 도화지	1	4	5	10	
	하드보드지	-	1	2	3	
	사포	-	1	-	1	
	잡지	3	10	3	16	
	한지	-	-	1	1	
계		69	112	37	218	
도구	붓	9	5	2	16	120
	팔레트	6	5	-	11	
	물통	7	5	1	13	
	물풀/풀	13	15	11	39	
	본드	-	2	-	2	
	테이프	-	2	2	4	
	조각칼/점토칼	-	-	3	3	
	자	-	1	-	1	
	가위	9	10	1	20	
계		44	45	20	109	
합계		217	319	138	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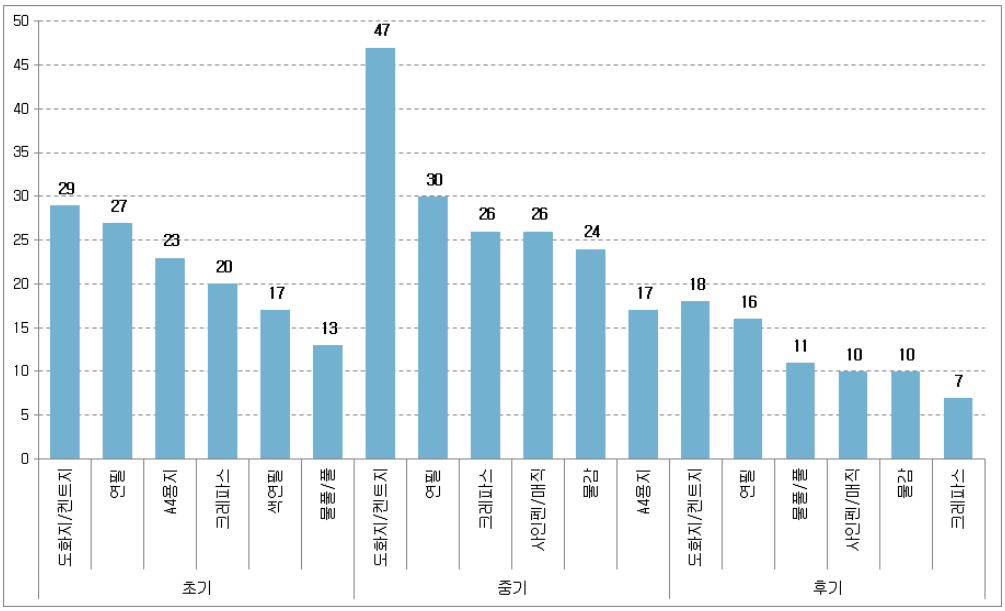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 표현 매체는 총 217번으로 평면(건식)매체가 76번으로 가장 많이 사용 되었다. 다음으로 종이 및 바탕 매체가 69번, 도구 매체가 44번, 평면(습식)이 12번, 비정형 매체 8번, 입체(습식)매체가 7번, 입체(건식)매체가 1번순으로 사용되었다. 초기 단계 주요 표현 매체의 세부매체를 살펴보면 평면(건식)매체는 연필이 종이 및 바탕 매체는 도화지/켄트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도구 매체는 물풀/풀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중기 단계 표현 매체는 총 319번 사용되었으며, 종이 및 바탕 매체가 112번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평면(건식)매체가 105번, 도구 매체가 45번, 평면(습식)매체가 26번, 입체(습식) 13번, 입체(건식) 매체와 비정형 매체가 각각 9번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중기 단계 주요 표현 매체의 세부매체를 보면 종이 및 바탕 매체는 도화지/켄트지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평면(건식)매체는 연필이 도구 매체는 물풀/풀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후기 단계 표현 매체는 총 138번으로 그 중 평면(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식)매체가 39번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종이 및 바탕 매체가 37번, 도구 매체가 20번, 평면(습식)매체가 12번, 입체(습식)매체가 11번, 비정형 매체가 11번, 입체(건식)매체 2번순으로 나타났다. 후기 단계의 주요 표현 매체의 세부매체를 살펴보면 평면(건식)매체는 연필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종이 및 바탕 매체는 도화지/켄트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도구 매체는 물풀/풀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림 7> 미술치료 프로그램 주요 세부 표현 매체

부적응 아동 관련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주요 세부 표현 매체를 <그림 7>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냈다. 프로그램 초기 단계에서 주로 사용된 세부 표현 매체는 도화지/켄트지, 연필, A4용지, 크레파스, 색연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 단계에서는 도화지/켄트지, 연필, 크레파스, 사인펜/매직, 물감 등의 순서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 후기 단계는 도화지/켄트지, 연필, 물풀/풀, 사인펜/매직, 물감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표현 매체는 초기, 중기, 후기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로 유추해 볼 때 도화지는 값이 저렴하며, 아동이 접하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쉽다는 큰 장점으로 종이 및 바탕 매체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연필, 사인펜/매직은 통제성이 높은 매체이다. 통제성이 높은 매체를 사용하는 대상자는 주로 충동성, 공격성, 문제행동 등의 통제와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미술치료 프로그램 표현 방법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표현 방법을 그리기, 꾸미기, 만들기, 붙이기, 찍기, 놀이로 구분하였으며, 각 표현 방법을 세분화하여 초기, 중기, 후기 단계로 나누어 분석했다.

<표 35> 미술치료 프로그램 표현 방법 N=457

표현 방법	계
그리기	234
꾸미기	16
만들기	101
붙이기	49
찍기	16
놀이	41
합계	457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전체전인 표현 방법을 <표 35> 와 같이 나타내었으며, 총 457회의 표현 방법 중 그리기가 234회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그 다음 만들기가 104회, 붙이기 49회, 꾸미기와 찍기가 각각 16회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36> 미술치료 프로그램 표현 방법 - 초기, 중기, 후기 N=457

표현 방법		초기	중기	후기	소계
그리기	자유화	14	24	11	49
	난화	5	3	-	8
	자화상	6	8	6	20
	가족화	5	7	-	12
	분할법	2	2	-	4
	핑거페인팅	5	6	2	13
	비눗방울그림	3	-	-	3
	물감그림	2	-	-	2
	상상화	2	3	2	7
	선물그리기	-	1	2	3
	만다라	2	2	2	6
	신체본뜨기	1	17	1	19
	스크레치	1	3	-	4
	풍경화	2	5	5	12
	학교생활화	1	3	-	4
	동굴화	1	1	-	2
	일상화	1	5	-	6
	인물화	1	5	1	7
	협동화	-	6	1	7
	사포그림	-	3	-	3
	갈겨그리기	-	2	-	2
	먹물그림	-	2	-	2
	페이스페인팅	-	1	-	1
	캐릭터그리기	-	3	-	3
	자기표현	-	6	1	7
	테두리법	-	1	-	1
	물감뿌리기	-	2	-	2
	기타	8	13	4	25
계		62	134	38	234
꾸미기	이름꾸미기	4	-	-	4
	만다라꾸미기	-	1	-	1
	희망나무꾸미기	-	1	1	2
	친구얼굴꾸미기	-	1	-	1
	정원꾸미기	-	1	-	1
	바닷속풍경꾸미기	-	1	1	2
	판도라상자꾸미기	-	1	-	1
	신체상꾸미기	-	1	-	1
	학교꾸미기	-	-	1	1
	상자꾸미기	-	-	1	1
	기타	-	-	1	1
계		4	7	5	16
만들기	휴지통	1	-	-	1
	수수깡	1	-	-	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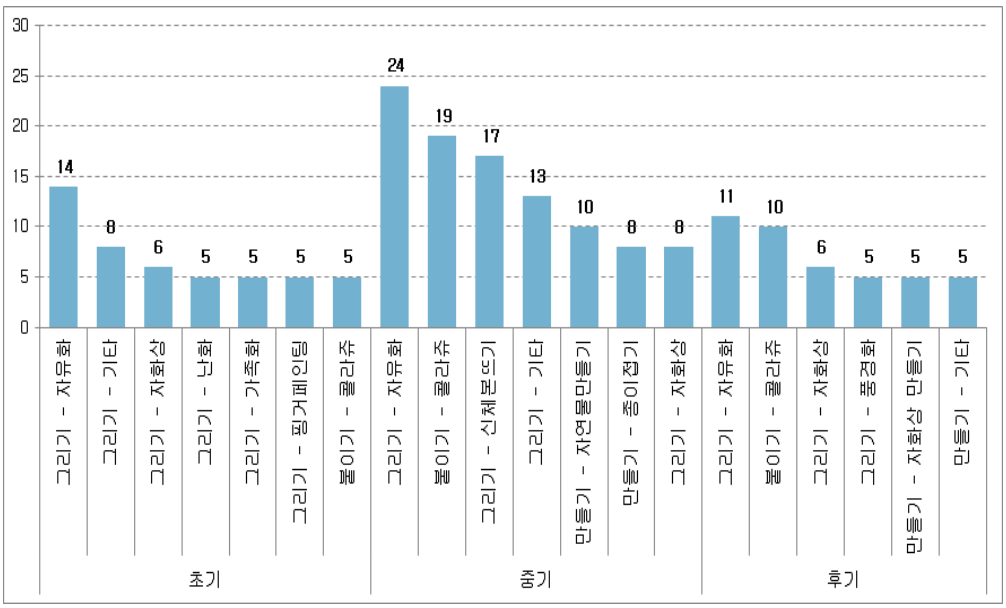
	음식만들기	1	3	4	8
	공만들기	1	-	2	3
	나의마음표현	1	-	2	3
	나무만들기	1	-	2	3
	인물상만들기	2	-	4	6
	석고손본뜨기	1	1	3	5
	종이접기	1	8	-	9
	가면만들기	1	1	-	2
	지점토그릇만들기	2	-	-	2
	악기만들기	2	-	-	2
	종이접기	1	-	-	1
	가면만들기	1	-	-	1
	악기만들기	2	-	-	2
	자유표현	3	6	-	9
	자아상만들기	-	2	5	7
	공동작품만들기	-	5	-	5
	자연물만들기	-	10	-	10
	앨범만들기	-	-	2	2
	상장만들기	-	-	3	3
	장신구만들기	-	-	4	4
	선물만들기	-	-	2	2
	기타	-	5	5	10
계		22	41	38	101
붙이기	콜라주	5	19	10	34
	색종이	3	4	3	10
	모자이크	1	2	1	4
	감정표현	1	-	-	1
계		10	25	14	49
찍기	데칼코마니	2	4	-	6
	손 · 발바닥 찍기	3	2	2	7
	마블링	-	1	-	1
	점토찍기	-	2	-	2
계		5	9	2	16
놀이	밀가루반죽	2	2	1	5
	점토놀이	2	3	-	5
	촛불놀이	2	-	-	2
	신문지놀이	2	1	-	3
	비누거품	2	-	-	2
	물감뿌리기	4	-	1	5
	기차놀이	-	2	-	2
	게임놀이	-	2	-	2
	종이죽반죽놀이	-	2	-	2
	자유놀이	-	3	-	3
	기타	-	7	3	10
계		14	22	5	41
합계		117	238	102	45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미술치료표현 방법의 초기는 그리기가 62회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만들기 22회, 놀이 14회, 붙이기 10회, 찍기 5회, 꾸미기 4회 순으로 나타났다. 표현 방법의 세부 내용에서 그리기에서는 자유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꾸미기에서는 이름꾸미기, 만들기는 자유표현, 붙이기는 콜라주, 찍기는 손·발바닥 찍기, 놀이는 물감뿌리기 놀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기의 표현 방법으로 그리기 134회, 만들기 41회, 붙이기 25회, 놀이 22회, 찍기 9회, 꾸미기 7회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의 세부표현 방법으로 그리기는 자유화가 만들기는 자연물 만들기, 붙이기는 콜라주, 찍기는 데칼코마니, 놀이는 기타로 나타났다.

후기의 표현 방법으로 그리기와 만들기가 각각 38회, 붙이기 14회, 꾸미기와 놀이가 각각 5회, 찍기 2회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후기의 세부표현 방법으로 그리기는 자유화가, 만들기는 자아상 만들기와 기타, 붙이기는 콜라주, 찍기는 손·발바닥 찍기, 놀이는 기타가 많은 것으로 보였다.



<그림 8>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주요 세부표현 방법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적응 아동 관련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주요 세부 표현 방법은 <그림 8>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주요 세부표현 방법으로 초기는 자유화 그리기, 기타 그리기, 자아상 그리기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중기는 자유화 그리기, 콜라주 붙이기, 신체 본뜨기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후기는 자유화 그리기, 콜라주 붙이기, 자화상 그리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공통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낸 표현 방법은 자유화 그리기이다. 자유화는 어떠한 주제를 주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여 그리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생각과 욕구, 감정 등을 파악하고 감정을 이완 시켜 부적응 감소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국내의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아동의 부적응 관련한 미술치료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석사 56편, 박사 3편 총 59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도별 논문, 연구 대상, 연구 설계, 미술치료 구조,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추후의 연구에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동향의 자료 분석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냈으며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논문 수에 관한 분석으로는 2001년 1편에서 2004년 이후 5편까지 증가되었다. 2010년까지 증감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4년에는 1편까지 감소하였다. 2015년에는 5편으로 급증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2019년까지 연구가 증감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적응 아동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재향(2018), 박치영(2018)의 연구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미술치료 전공의 대학원이 신설된 결과 지속적인 연구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 연구 대상의 연령(학년), 성별, 유형의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의 연령(학년)은 전체적으로 고학년의 수가 많았으며, 그중에서 11세(4학년)가 전체의 23.7%, 12세(5학년)가 18.6% 순의 빈도로 나타났다. 11-12세의 경에는 소속감과 또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시기로 이재향(2015), 홍성란(201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재향(2015)은 학교생활의 적응, 또래 관계의 원만한 유지를 위해 동기와 목적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이 많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이 시기에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청소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적응 행동문제를 조기 개입하여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연구 대상의 성별은 혼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2.9%로 가장 높았으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일반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성별을 구분하기보다는 혼합하여 진행하는데 이와 비슷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박아름. 2017).

연구 대상의 유형은 일반적 유형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83.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미술치료가 의학적 진단을 받은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에게도 다양한 이유로 많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적응 아동은 의학적 진단에 의한 부적응보다 아동 개인의 내면적 또는 환경적인 유형을 통해서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셋째,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의 연구 설계는 연구 결과 분석방법, 연구 설계, 연구주제, 연구 도구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그에 따른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결과 분석방법은 양적, 질적 분석을 혼합하여 분석한 통합적 분석이 59.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미술치료에서는 아동의 변화 과정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치료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질적 분석과 실험의 효과성을 증명하는 양적 분석을 병행하여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질적인 분석은 발견의 역할을 하고, 양적 분석은 확증을 위한 역할을 하므로(박도순. 2001) 연구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아동 미술치료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연구 설계에서는 단일집단이 44.1%, 실험-통제집단 23.7%로 나타났다.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 연구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설계의 장점은 개인으로 이루어진 설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개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동의 특성과 문제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연구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 설계의 연구주제는 단일 변인이 55.9%, 다중변인(종속변인)이 44.1%로 나타났다. 다중변인을 범주화하여 분류한 결과 자아발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아발달이 아동의 사고능력 및 인지구조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된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는 의견과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자아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달은 사회적 학습기능까지 영향을 주며, 또래와의 관계 기능과 환경에서 적응하는 기능까지도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설계의 연구 도구는 객관적 검사 도구와 투사 검사 도구로 분류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객관적 검사 도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행동 평가척도검사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학교생활 적응검사, 학교적응 척도 등의 비중을 보였다. 투사검사는 동적 학교생활화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객관적 검사 도구의 행동 평가척도는 아동에게 어떤 심리적 혹은 정서·행동적 측면의 부적응 양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적응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아동의 문제행동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투사검사의 경우 동적 학교생활화가 높게 나타난 것은 아동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드러나는 학교에서의 생활과 또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의 파악을 통해 부적응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함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넷째,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에서 미술치료 구조의 치료환경, 치료형태, 치료형태 별 활동, 참여 인원수, 총회기 수, 주당 회기 수, 회기 별 치료 시간의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미술치료 구조의 치료환경은 학교가 5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치료 환경이 학교가 많은 것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가진 아동을 모집하는데 용이하며, 미술치료 의뢰가 대부분 학교 선생님에 의하여 의뢰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술치료 구조의 치료형태는 집단으로 진행하는 형태가 76.3%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술치료의 치료형태 별 활동은 집단치료에서 개인, 집단 활동을 병행하는 활동이 57.5%로 나타났다. 집단미술치료 안에서 집단원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집단 안에서의 갈등과 경험을 통해 자기를 인식과 수용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집단 안에서 개인의 활동을 병행하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것은 집단원과의 관계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동의 내면적 문제가 해소되어야 행동적 측면에도 변화가 일어나 문제행동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참여 인원수는 3-5명을 대상으로 한 빈도수가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재향(2015)의 연구 결과 참여 인원수가 5-8명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과는 상이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에서 아동이나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4명 정도가 적절하다(김수향 외, 2002)고 하는 의견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뿐만 아니라 행동통제가 어려운 아동일 경우 4명 정도의 집단크기가 적당하다(한국미술치료학회, 2000)는 의견과도 일치한다. 이에 따라 미술치료 회기 구성에서 아동의 부적응 정도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인원의 구성이 필요하다.

총회기 수는 10-15회기가 48.3%로 나타났다. 주당 회기 수는 주당 1회가 가장 높은 빈도로 55.3%를 차지하였다. 이선민(2016)의 연구 결과에서는 주로 16-20회기로 진행된 결과와는 다소 상의하지만, 정명주 외(2002)는 보통 10-15회기를 기준으로 분기를 나누어 프로그램을 계획한다고 주장한다는 의견과는 일치하다.

마지막으로 미술치료 회기 별 치료 시간의 결과는 30-60분이 전체의 65.5%로 나타났다. 강진령(2005)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집단의 경우는 회기당 30~40분 정도, 고학년은 회기 당 45분 내지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이는 아동의 집중시간과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의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유형, 목표, 표현 매체, 표현 방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유형은 매체와 기법을 다양하게 혼합하여 구성한 복합프로그램이 79.4%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적응 문제 증상을 다각적으로 접근함으로 효과적인 치료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의 발달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유형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유형이 더 다양하게 시도될 필요가 있다.

부적응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초·중·후기의 전체적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표에서 감정인식 및 표현과 관련된 목표가 21.6%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부적응 아동의 공격적 태도, 미성숙한 행동,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분위기 파악이 미숙한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미술치료 초기 단계에는 관계 형성이 42.6%로 가장 많이 치료목표로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치료 초기 단계는 치료사와 내담자 간의 친밀감 형성과 신뢰감 형성이 치료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지면 아동의 흥미와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어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중기 단계에서는 감정인식 및 표현과 관련된 목표가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감정을 표현시키는 중요한 목적은 억압된 감정을 의식화시켜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아로 하여금 충동을 인식하고 통제하게 한다(전순영, 2014)는 의견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미술치료 후기에서는 긍정적 자아상과 관련한 목표가 30.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긍정적 자아상의 확립은 또래 관계로 확대되어 타인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표현 매체를 초·중·후기 별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초기 단계는 평면(건식)매체, 중기 단계는 종이 및 바탕 매체, 마지막 후기 단계에서는 평면(건식)매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초·중·후기에서 주로 사용한 세부 표현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된 매체는 도화지/켄트지로 나타났다. Rubin(2007)은 미술치료사는 비교적 간단한 매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Malchiodi(1998)는 많은 미술치료사들이 아동의 자발적인 표현을 이끌어내기를 원한다면 간단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표현 방법은 초·중·후기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그리기가 50.9%의 빈도를 보였다. 그리기는 접근이 용이(이현정, 2004)하여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표현 방법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살펴본 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과 초기와 중기에서는 그리기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후기에서는 그리기, 만들기가 동일하게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미술치료의 주요 세부표현 방법을 살펴본 결과 초기와 중기, 후기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난 표현 방법은 자유화 그리기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모든 단계에서 자유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 자유롭게 그리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많이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 연구의 결론 및 논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 연구에 대한 국내 석·박사 학위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다. 박사학위가 3편으로 박사 연구에 대한 동향을 자세히 알아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 연구가 박사논문에서도 활발히 쓰여 지길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발표된 국내 학위논문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였기에 결과와 해석이 협소할 수 있다. 따라서 학술지연구를 포함하여 연구가 이루어지면 연구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의 유형의 결과를 보면 의학적 진단을 받은 유형보다 일반적 유형의 대상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일반적 아동이 연구의 대상이 모집하는데 용이 할 수 있지만 최근 의학적 진단을 받은 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 추후 아동의 부적응 미술치료 연구에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아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넷째, 미술치료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 대상과 목표에 따른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성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매체나 기법을 선정 할 때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와 타당성을 제시하여 나타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한 논문은 미비하여 분석기준에 포함할 수 없었다. 따라서 추후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을 제시한 연구가 늘어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길 기대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분석방법에 있어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이 되지 않아 다소 아쉬운 경향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 분석방법이 더욱 다양하게 진행된다면 연구 결과에 있어 보다 자세하고 명확한 연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미술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연구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에 대한 연구를 설계할 때 기초자료가 되고 추후 프로그램을 실시하려는 미술치료사 및 연구자들에게 자세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강봉규(1990). 교육심리학. 서울: 형설출판사.

강진령(2007). 집단상담의 실제. 서울: 학지사.

한국교육심리학회(2000). 교육심리학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교육출판사(1980). 교육대사전. 서울: 교육출판공사.

권상구(2000). (예술과 디자인을 위한) 표현기법. 서울: 미진사.

김광수, 김선정(2010). ADHD 아동대상 국내 미술치료 중재연구 현황 분석. 한국초등교육, 21(2), 23-44.

김동연, 최외선 (1997). 아동미술치료. 대구: 한국미술치료학회.

김동하(1991). 초등학교 아동의 부적응 행동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진(2015). 미술치료의 치료적 요인별 미술 매체 분석.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진, 강영주(2014). 아동미술치료 프로그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예술심리치료연구, 10(3), 87-109.

김석우, 박상욱(2015).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김선정(2010). ADHD 아동을 위한 국내 미술치료 중재연구 현황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숙이 (2014). 한국 미술치료의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덕(2018).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의 연구 동향분석.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민(2007). 초등학교 고립아동에 대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숙, 신지혜, 손윤경(2009). 아동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파주: 교문사.

김춘경(2016). 상담학사전. 서울: 학지사.

두산동아(1997).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서울: 두산동아

문미영(200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도순(2001).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박아름 (2017). 저소득층 아동에 관한 미술치료의 연구 동향과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원광대학교 보건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치영(2018).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집단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 2002년 - 2017년 국내 학위논문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정옥 (2017). 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정서지능 및 또래 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련(2017). 진로관련 미술치료의 국내 연구 동향.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지혜(2010). 부적응아동의 미술놀이 치료 프로그램 효과.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정아(2018). 조현병에 대한 미술치료연구 동향 : 국내학술지를 중심으로. 차의과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울(2016). 치매노인 대상 미술치료의 국내 연구 동향 분석 : 2000년~2015년 국내 논문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영덕. 한수정(1996). 학교생활 부적응아동의 부적응감소를 위한 학교사회사업 진단프로그램개발에 관한연구. 태화임상사회사업연구.

윤명신(2018).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한 집단미술치료의 국내 중재연구 동향.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민(2016).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사례 동향 연구 : 2010년-2015년 국내 및 국외 학회지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은(2011). 국내 정규 미술치료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연구 동향.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향(2015). 초등학생의 사회성 관련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가천대학교 스포츠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현(2016)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연구 현황 분석 및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진(2006), 협동작업 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아동의 또래 관계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대운(1989). 현대 교육 심리학. 서울: 동문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순영(2014). 미술치료의 치유요인과 매체. 서울: 하나의학사.

전혜민(2019). 여성의 우울에 대한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여주(2003). 미술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정원식 외(1984). 현대 교육 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최은영, 이은봉, 조규영 (2015). 우울에 대한 미술치료 연구 동향. 통합심신치유연구, 2(1), 42-71.

최인혁 외(2014). 매체 in 미술치료. 파주: 양서원.

한국미술치료학회(1994).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구: 동아 문화사.

홍성란(2010). 초등학생 미술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명희(2014). 아동미술치료 연구 도구에 대한 메타분석 : 그림투사검사 및 자아존중감척도.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ower, E M. (1969). Early identification of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 in school.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Bower, E. M. (1969). Early identification of emotionally handicapped children in school. Charles C. Thomas.

kauffman, J, M(1981). Characteristic of children`s behavior disorders, Columbus : Ohio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

Liebman, S.(1958). Emotional Problems of Childhood. Philadelpia and Montreal : J. B. Lippincott.

Malchiodi, Cathy A (2000). 미술치료. 서울: 조형교육

Rubin, J. A.(2007). Rubin의 통합적 예술치료 읽기 (최소영, 김혜정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Rubin, Judith Aron(2006). 미술치료학개론(김진숙 역). 서울: 학지사.

Wadeson, H.(1980). Art psychotherapy. New York : Wiley.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 록

부록 1.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 분석대상 논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1> 분석대상 논문

1. 하혜민(2019). 학교부적응 다문화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김은명(2019). 학교부적응 개선을 위한 치료기반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초등학교4학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이혜진(2018). 놀이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학교 부적응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조윤서(2018).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자기표현력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서민정(2018).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부적응 행동 변화를 위한 미술치료 단일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신선화(2018). 발도르프 색채 이론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이혜선(2018).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을 겪는 초등학생의 사회성기술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박은경(2017).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학교부적응 정도와 자아존중감 변화에 관한 사례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신혜주(2017). 학교부적응 아동의 미술심리치료 개별 사례연구 : 애착이론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강소미(2017)점성매체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선문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백정옥(2017). 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정서지능 및 또래 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여동주(2017).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정서지능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전숙인(2016)학교생활 부적응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단일사례연구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소승희(2016). 명화의 이미지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보건.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이새미(2015).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학교적응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정유미(2015). 놀이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김시원(2015).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정서지능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박지효(2015). 점성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김영란(2015). 인지행동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최서윤(2014). 십이지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과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이경희(2013).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학교 부적응 초등학생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정윤숙(2013). 소집단 미술활동이 ADHD성향 아동의 부적응 행동 완화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주희연(2012). 점토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또래 관계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이하나(2012). ADHD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 부적응 행동에 관한 미술치료 단일사례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 권필희(2011). 학교 적응문제에 관한 아동의 미술치료 단일사례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김수미(2010). 선호매체인 점토중심미술치료가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 장효정(2010). 집단미술치료가 부적응 아동의 자기표현력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 고학년 특기적성수업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 박경화(2010). 인지행동적 집단미술치료가 학교생활 부적응 아동의 사회성 및 주의집중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9. 이소정(2010). 집단미술치료가 부적응 아동의 자기 효능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0. 신지혜(2010). 부적응아동의 미술놀이 치료 프로그램 효과.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1. 고혜민(2010). 게슈탈트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2. 김인선(2009).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 인간중심 미술치료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3. 김현아(2009). 부적응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4. 김신아(2009). 미술치료를 통한 부적응 행동변화 사례 연구 :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 여신화(2008). 집단미술치료가 시설부적응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 : 공격적 성향과 교우관계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6. 박을숙(2008). 집단미술치료가 부적응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기술 향상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7. 김은주(2008). 야뇨증 아동의 야뇨빈도 감소와 부적응 행동개선을 위한 행동주의적 미술치료사례.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8. 오미경(2008). 학교 부적응아를 위한 미술치료 활용방안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9. 홍유희(2008). 협동작업 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또래 관계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0. 채의병(2007). 집단미술치료가 부적응 행동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1. 박경희(2007).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부적응 행동아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학교 경영행정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2. 최윤희(2007). 미술치료가 정서장애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연구.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3. 손경희(2007).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부적응 행동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4. 김유미(2007). 부적응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단일사례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5. 이선영(2006).복합 미술놀이 치료를 통한 부적응 영재아동의 치료 사례. 연구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6. 석효정(2006). 가정폭력피해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 개선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7. 강말녀(2006). 부모상담과 연계한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학교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8. 정나영(2006) 우울로 인한 학교부적응 아동의 미술치료 사례.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9. 한정희(2005). 또래집단 미술치료가 경도 정신지체아동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0. 허옥희(2005). 집단 미술치료가 초등학교 부적응 행동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1. 정문순(2004). 미술치료를 통한 경계선 지능 아동의 부적응 행동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2. 홍정화(2004). 아동의 부적응 행동 완화를 위한 미술치료의 사례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3. 이수경(2004).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부적응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4. 고옥경(2004).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부적응 감소에 관한 연구 : 일탈행동과 교우관계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5. 민영희(2004). 동적가족화에 나타는 반응특성과 아동의 학교생활 부적응과의 관계. 청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6. 권은숙(2003).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부적응 행동변화에 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치는 효과.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7. 김희정(2003).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공격성 및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8. 윤영임(2002). ADHD 아동의 부적응 행동 개선에 관한 연구 : 미술치료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9. 이미애(2001).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국 문 초 록

아동의 부적응관련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 2001년 ~ 2019년 국내 학위논문 중심으로

유 설 화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미술심리치료전공

지도교수 이 진 욱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발표된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의 국내 학위논문을 분석하여 국내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와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 논문의 선정기준에 따라 박사학위논문 3편과 석사학위논문 56편 총 59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논문을 연도별 논문 분석, 연구 대상 분석, 연구 설계, 미술치료 구조,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분석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분석에 따른 결과는 2001년 1편으로 시작하여 2004년 4편까지 급증했다. 이후에도 증감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3편으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둘째, 연구 대상에 따른 연구 동향은 11-12세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남성과 여성을 혼합하여 연구하는 혼성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대상의 유형은 의학적 진단을 받지 않은 일반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연구 설계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면,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한 통합적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으며, 부적응만을 주제로 한 단일변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다른 주제와 병행한 다중변인보다 많았다. 부적응과 함께 연구된 변인(다중변인)은 자아발달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 도구로는 객관적 검사 도구로는 한국 아동·청소년 행동 평가척도검사가 투사 검사 도구로는 동적 학교생활화(KSD)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넷째, 미술치료 구조의 동향의 치료환경은 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치료형태는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집단 형태의 치료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치료형태 별 활동에는 집단치료를 대상으로 개인활동과 집단 활동을 병행하는 치료형태가 많으며, 인원수는 3-5명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았다. 총회기는 10-15회기로 주 1회, 30-60분의 치료구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동향으로 프로그램의 유형에는 다양한 매체와 기법은 혼합하여 구성한 복합프로그램 유형이 주로 사용되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목표는 초기, 중기, 후기의 전체적인 목표는 감정인식 및 표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의 목표를 단계별로 살펴본 결과 초기와 중기에는 감정인식 및 표현이 후기에서는 긍정적 자아상과 관련한 목표가 높게 나타났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주로 사용된 표현 매체는 평면(건식)이 많이 사용되었다. 프로그램의 단계별 표현 매체를 살펴본 결과 초기에는 평면(건식)이 중기에는 종이 및 바탕 매체, 마지막 후기에서는 평면(건식)매체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전반적으로 주요 사용된 세부 표현 매체는 도화지/켄트지, 연필, A4용지, 크레파스 등이 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표현 방법의 각 단계별 표현 방법의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로 초기, 중기, 후기는 모두 동일하게 그리기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지만 후기는 그리기와 함께 만들기도 동일한 결과 값이 나왔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주요 세부표현으로는 초기와 중기 그리고 후기 동일하게 자유화 그리기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향후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아동의 부적응 관련 미술치료 연구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